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제1565호

고속道 5000km시대 열린다

국토부 5개년 계획

2020년까지 28조9000억 투입

중부선 등 혼잡구간 해소 기대

2020년까지 28조9000억 원을 투자해 13개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10개 상습 정체구간이 확장된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로 85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울~양평, 울산 외곽, 서창~장수, 금천~대덕, 밀양~진례 고속도로 등 13개 노선이 신설된다. ▶관련기사 2면

대부분이 재정투자이고, 안산~인천, 경인 지하화는 민간투자로 추진된다. 이 중 울산 외곽, 경부선 남이~천안, 중부선 남이~대소·대소~호법, 중부내륙선(창녕~현풍)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중부선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보고 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중부선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만약 전체 구간이 예타 결과가 안 나오면 일부 노선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습 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대산~당진 같은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등의 동서축을 보완해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후 여건 변화가 있으면 예타를 거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9년 만에 '피의자 신분' 특검 간 이재용

朴대통령 뇌물의혹 등 조사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지 9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련기사 3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지 아니면 일반 뇌물공여죄가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적용 법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대가성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횡령 등의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제부인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최 씨 측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 임원들의 신병 처리를 놓고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이 지난 9일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삼성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을 겨눈 특검의 칼날이 소기의 성과를 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낸 것에 대해 "최 실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7월 대통령과의 독대 후에 최 실장에게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관련 언급을 많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백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트럼프 첫 기자회견 '한 방' 없었다

대규모 감세·인프라 투자 언급 않고

기존 '트위터 소통' 연장선에 그쳐

뉴욕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열린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1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기존 '트위터 소통'의 연장선상에 그쳤다. 당선 직후 이어져온 '트럼프 랠리'를 지속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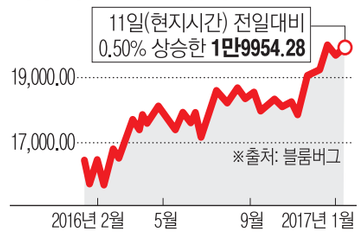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트럼프타워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제약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치우쳤다.

그는 "신이 창조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자가 되겠다"며 "제너럴모터스(GM)가 포드와 다른 회사들처럼 미국 고용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따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협상 또는 파기를 외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상 협정은 완전한 실패"라며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대선 개입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그렇게(해킹 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이어졌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못 박으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려는 CNN 기자에게 "당신도 가짜다"라고 쏘아붙였다.

다우지수 1년간 추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직후 으레 수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전임자들과 달리 당선 후 트위터로 일방적 소통을 해왔다. 그간 트럼프의 짧은 트위터 메시지는 금융시장에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최근 뉴욕증시를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린 트럼프 랠리가 모멘텀을 잃자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굵직한 경제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를 확인하려 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는 기자회견 직후 하락 반전했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국채 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 국제유가 강세와 미국 기업 실적 기대감에 진정세를 보이며 겨우 하락세를 모면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상폐위기 STX, 매물로 나왔다

채권단 보유주식 공개매각키로

출자전환 통한 유상증자도 검토

㈜STX가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STX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 매각을 통해 해당 이슈를 해소하겠다는 채권단의 선택이다.

12일 산업·농협·우리·신한은행 등 ㈜STX의 채권단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발표했다.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매각대상은 ㈜STX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과 향후 출자전환할 경우 취득할 주식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TX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9.5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농협·신한은행이 각각 14.97%, 10.07%, 5.92%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채권단이 매각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STX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다.

㈜STX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3000억 원 규모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오는 3월 중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STX는 상장폐지된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자본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아직 ㈜STX의 결산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출자전환 규모와 시점 등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진행해 ㈜STX의 자본상태를 높여 상장폐지를 막고 매각가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당장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TX의 매각가는 10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11일 종가 기준 ㈜STX의 주당 가격은 2760원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약 70%를 단순 적용할 경우 매각가는 약 910억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출자전환 지분이 추가되면 매각대상이 확대돼 매각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STX의 경영 여건이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매각가가 크게 뛰어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수년전 만든 냉동닭 떨이 판매

위메프·하림의 전략적 협업?

유통기한 석달 남겨놓고 상시제조

논란 일자 반품시 무료 배송 조치

상품과 서비스 강화 등 전략적 협업을 시작한 위메프와 하림이 제조일이 수년이나 지난 냉동 닭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메프는 소비자 항의와 반품 요구가 빗발치자 사과와 함께 반품 시 무료 배송 조치를 취했다.

11일 위메프 사이트에 따르면 하림은 '[111데이] 하림 반짝 특가 영계 306g + 부재료 49g'이라는 상품명으로 냉동 닭을 판매했다. 제품 가격이 1111원으로 저렴해 이날 오후 4시 48분께 4828개나 팔렸다.

문제는 위메프가 '딜 상세정보'와 '상품정보'에 기재한 제품 제조 연월일을 달리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혼선을 빚게 한 점이다.

'딜 상세정보'에 올라온 제품 상세 사진에는 제품 확대 사진과 함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상시제조상품~2017.04.26까지'라고 돼 있다. 유통기한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있으나 제조일이 상시로 돼 있어 생산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상품정보'를 보면 정확한 제조 연월일은 2015년 4월 28일로, 만들어진 지 21개월이 된 제품이다.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깐깐해지면서 제조된 지 수년이나 지난 데다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구매 후기에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글이 잇따랐다.

또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실제 제품 판매 수량은 오후 7시를 넘기면서 4772개로 줄어들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제품들이 매일 만드는 것이라 처음에는 제조일자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가 안 돼 있었다"며 "고객들이 제조일자를 뒤늦게 알게 돼 불만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과 말과 함께 반품은 무료로 받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정치 이슈 **빨라지고 있는 대선시계** ▶18~2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이지만 빨라지고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 시계에 발맞춰 대권주자들도 잰걸음 중이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공약 보따리를 풀었고, 오늘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본격 대선행보에 돌입한다. 양강 구도 속에서 군소 후보들도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본격 레이스가 펼쳐질 경우 어떤 조합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NCSI 2016 NCSI ▶10
호텔신라 85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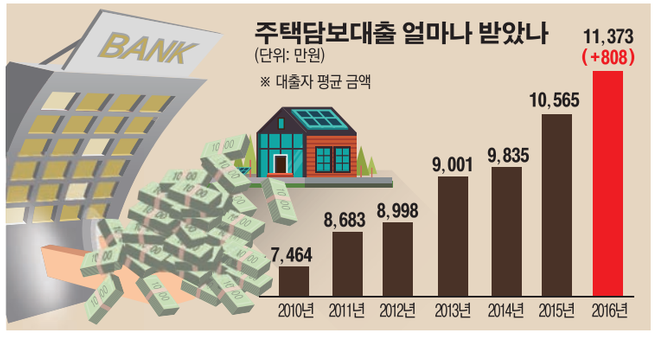
박병원 회장 ▶14

정찬우 이사장 ▶22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News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받은 가구 절반 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52.8%가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구주가 만 20~59세인 전국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대출 가구는 37.8%, 2억 원 이상 대출 가구는 15%였다.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25.7%, 2012년 36.5%, 2014년 44.3% 등으로 점차 증가해 2015년엔 49.8%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억1373만 원으로 전년보다 808만 원 늘었다. 주담대 만기는 30년이 23.1%로 가장 많았고, 20년(20.6%), 10년(17%) 순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상환 금액은 6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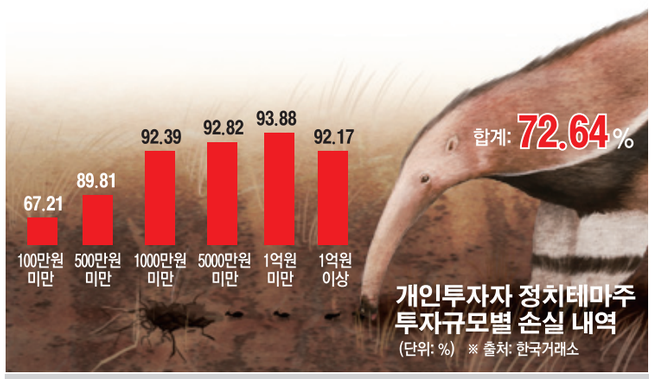
정수천 기자 int1000@

개미지옥 된 정치테마주… 10명중 7명은 '쪽박'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은 '쪽박'을 찬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만 개인투자자들이 날린 투자금은 계좌 하나당 평균 191만 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11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계좌의 약 73%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테마주의 수익률도 '허상'에 불과했다. 단기간 급등락을 보인 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 해당 종목의 최고가와 종가를 비교해본 결과 고점 대비 최소 6.5%에서 최대 44.6%까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의 개인투자자 참여 비중은 97%로 대부분이 개인이었다. 기관과 외국인 비중은 3% 미만이었다. 또한 정치테마주의 평균 시가 총액은 코스피가 1152억 원, 코스닥이 1403억 원으로 시가 총액과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 주가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유충현 기자 lamuz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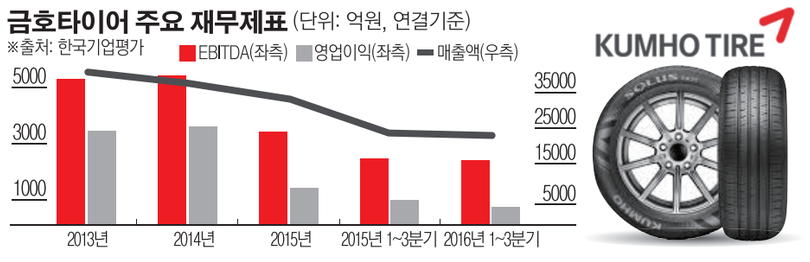


박삼구 그룹재건 뚝심 '차이나머니' 누를까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8분 능선' 넘은 금호타이어 매각… 오늘 본입찰

이번주내 유력 인수후보 결정날 듯
박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가졌지만
SPC 통한 참여제한 자금조달 난항
'인수액 1조' 제시 중국기업에 맞서
'금호재건 마지막 조각' 채울지 관심



금호타이어는 1960년에 세워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은 운수회사에 타이어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삼양타이야공업'을 설립했다. 금호타이어의 시작이다. 설립 이후 50년간 한국타이어와 함께 국내 시장을 양분했던 이 회사는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주인이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바뀌었다. 워크아웃 졸업까지 4년간 각고의 시간을 보낸 금호타이어. 이 회사의 새 주인의 윤곽이 12일 정해진다.

이날 오전 11시 금호타이어의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본입찰을 마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13일 정해진다. 이번 주 안에 금호타이어의 유력 인수 후보가 확정되는 것이다.

본입찰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이 중국 등 해외업체가 될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예상이 현실로 될 게 유력하다. 적격 인수 후보는 중국의 상하이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SAIC), 더블스타, 링룽타이어, 지프로, 인도의 아폴로타이어다. 이 중 SAIC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 안팎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일 늦은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적정 가격을 고민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SAIC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AIC는 자동차 전장부품을 만드는 HT-SAAE, 공조부품을 제작하는 SDDAC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인수 의지만 놓고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신년사에도,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금호타이어를 반드시 인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회장이다. 문제는 자금이다.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 회장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온전히 개인 자격으로만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박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이 방안 역시 쉽지만은 않다.

채권단과 맺은 약정에 따르면 박 회장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투자자에게 회수 방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자금 조달 구조가 적정한지는 심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투자자(FI)들이 박 회장에게 자금을 댈지 미지수다. 해외업체들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가량을 제시하면 박 회장의 희망은 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은 2015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60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했다. 이 중 차입금 일부를 갚기 위해 금호리조트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와 다른 평가도 있다. 국내 증권사 대표는 "금호타이어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박 회장"이라며 "이를 보고 자금을 투자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홍샛별 기자 freshphase@

정체구간 확장하고 10개 노선 신설… '저속도로' 반으로 줄인다

고속도로 5000km 시대

2020년까지 총 882km 늘어나
제2순환도로·울산 외곽도로 신설
중부선 남이~대소~호법 구간 확장
국토부 "타당성 조사 후 조기착공"

정부가 2020년까지 중부선 남이~호법, 김해공항~대동, 서평택~매송 등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확장해 혼잡구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5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000만 대에 달하면서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심각해지자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난다. 특히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는 2015년 4193km에서 2020년이면 5075km로 연장돼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 시대를 연다. 혼잡구간은 1299km에서 656km로 49.4%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수도권 제2순환도로인 안산~인천, 광주순환 금천~대덕,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신설된다. 또 경인선은 지하화되고 강화~서울, 서울~양평,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 중, 세종~안성 구간은 사업 적격성 검토 중이다. 이 구간은 각각 2023년,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습 정체구간인 중부선 남이~대소, 대소~호법 구간도 확장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의 영향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분기점·나들목 등 접속부 정체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올해에는 경부선 판교IC, 오산IC, 서해안선 서산IC 연결로 개량, 서울 외곽선 조남~도리 및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 차로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고속도로 건설 계획 (2016~2020년 반영 노선)

신설	구분	노선명	총사업비(억원)
재정	소계	–	108,841
	동서7축 지선	서울~양평	12,848
	동서2축 지선	울산외곽	5,234
	동서7축 지선	서창~장수	3,241
	순환6축	금천~대덕	20,782
	남북5축 지선	밀양~진례	7,910
	남북5축 지선	부산신항~김해	8,251
	동서4축 지선	대산~당진	6,501
	동서3축	성주~대구	8,698
	동서6축	제천~영월	11,649
	동서4축	공주~청주	8,262
	남북1축	강화~서울	15,465
민자	소계	–	26,434
	순환2축	안산~인천	16,921
	동서7축 지선	경인지하화	9,513

확장	구분	노선명	총사업비(억원)
재정	소계	–	32,266
	중부선	남이~대소	6,604
	남해선	창원~진영	744
	남해선	칠원~창원	2,635
	서해안선	매송~안산	2,267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4,404
	제2경인선	문학~석수	7,051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1,921
	호남선	삼례~김제	2,322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1,693
	호남지선	유성~회덕	2,625
합계			167,541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리더십 공백 우려 '삼성 당혹'… M&A·신사업 올스톱 위기

이재용 삼성 부회장, 9년 만에 특검 출석

서열 1·2·3위 잇따라 특검 조사… 李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반도체·전장·인공지능 등 사업 추진 차질… 글로벌 신인도 추락 치명타
"대통령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출연… 피의자 아닌 피해자" 적극적 방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의 '경영시계(視界)'가 또 멈췄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면서 그룹 내 불안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9일 그룹 내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을 소환한 특검은 관계자 일괄 사법처리까지 거론,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9년 전 삼성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4건의 고소·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위기감은 9년 전보다 훨씬 크다는 게 삼성 내부의 판단이다. 당초 특검 소환은 예상했지만,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불려가는 만큼, 최악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후, 2년 8개월 만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 리더십, 집단 공백 위기… 현안 올스톱 =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 후 삼성 관계자를 일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만일 현실화되면 그룹 총수와 수뇌진의 동시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재편이나 지주사 전환, 인수·합병(M&A)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사실상 올 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올해를 '뉴삼성'의 원년으로 삼으려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스타트업이란 기치도 올렸다. 지주사 전환 검토라는 로드맵까지 발표한 참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특검의 피의자 신분 소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상적인 경영 활동도 멈춰선다. 더불어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의 대외적 이미지 추락은 물론, 영업·마케팅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삼성은 스마트폰 부활, 반도체 투자, 신사업인 전장과 인공지능까지 챙겨야 할 현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만큼, 그 충격파는 삼성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유고 사태가 오면 모든 업무에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전략실도 없애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뇌물공여 피의자 소환에 미전실 '패닉' =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히자 '패닉'에 빠졌다. 앞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터라, 이 부회장을 곧바로 피의자로 부를 것으론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강압에 의해 돈을 뺏긴 피해자인 삼성 총수 격인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공개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특검의 뇌물죄라는 프레임에 맞서 이 부회장이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정공법으로 맞설 태세다. 뇌물죄 피의자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이뤄진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승마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우 기자 acw@

"이 안에 다 있다"

삼성-최순실 '은밀한 거래'
결정적 증거는 '제2 태블릿'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지원금·사용내역 등 대거 포함
이재용 부회장 압박할 최대 무기로…
특검,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자신감

최순실 태블릿PC 어떤내용 들어있나
(장시호 제출 추가 확보 태블릿 PC)

수사 주체	박영수 특별검사팀
제출자	장시호 (최순실 조카)
제출날짜 (검찰 발표)	2017년 1월5일 특검에 제출
소유자	최순실
사용기간	2015년 7월경 ~ 11월경
소유자 확인 내용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확인
태블릿PC에 저장된 주요 내용	–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관련 이메일: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 – 박 대통령 임기 중반 최씨가 말씀자료 작성한 관여 정황: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보한 제2의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도화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순실이 삼성과 직접 접촉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다수 발견돼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보낸 돈이 뇌물이라는 의혹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하고, "(최씨의) 태블릿에 저장된 이메일은 100여 개 정도"라며 "주된 내용은 코레스포츠의 독일 설립 과정과 삼성 지원금 수수 내역"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 기기를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와 함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삼성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코레스포츠에서 자금이 빠져 나가서 독일에서 사용되는 내역, (이를 테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금이 나간 경위가 이메일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이 기기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다. 황 전무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다는 점에서 최 씨가 삼성과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코레스포츠에 돈을 보낸 게 사실이지만, 지원금이 최씨 일가를 위해 쓰일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유라 씨가 수혜자이지만, 계약상으로는 지원 대상 승마선수 6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전무가 최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코레스포츠의 설립 과정부터 관여했다면, 코레스포츠가 사실상 최 씨의 가족회사라는 것을 삼성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검은 지난 9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을 참고인 조사할 당시 태블릿에 담긴 내용을 추궁하지도,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다. 특검은 이들을 조사하기 전인 5일 장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태블릿을 압수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실무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최씨의 태블릿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은 이번 태블릿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검은 전날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수정본'의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 정 전 비서관은 회의 전날인 12일 최 씨에게 말씀자료 초안을 보내줬다고 시인했다. 유난히 수정 사항이 많아 특별히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돌아오는 반기문, 기다리는 '송곳 검증'

'태광실업서 금품수수' 의혹에 동생·조카는 美서 사기혐의 기소
유력한 대권주자 반열 올랐지만 각종 현안 입장·정책 검증 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반 전 총장은 공항에서 한국 언론과 간단한 인터뷰를 한 뒤 유순택 여사 등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 뉴욕=연합뉴스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반 전 총장은 입국장에서 '국민화합'과 '국가통합'을 화두로 귀국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이룬 성과 등 소회도 밝힌다.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순실 사태와 한일 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돼 이제는 유력한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지만, 모두가 그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견제와 여러 의혹을 둘러싼 혹독한 검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잣대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다. 반 전 총장은 그간 직간접적으로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아직까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게 전부다.

귀국 하루 전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 부자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대변인은 "반 전 총장도 모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남기업은 고(故) 성완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기업으로, 성 회장은 충청포럼 회장을 맡아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충청 대망론'을 띄운 사람이다. 반기상 씨가 경남기업 고문이었던 점도 반 전 총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귀국 이후 승용차를 타고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한다. 이튿날인 13일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사당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한다.

김의중 기자 zerg@

黃대행, 설 앞두고 물가관리 '고삐'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점검
野 "공공부문 인상 자제" 촉구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고삐를 죈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한 달을 맞은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과 관련 "지난 한 달간의 국민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강도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치안 안정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주시고, 치안대책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진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11일로 마무리된 27개 부처 연두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챙겨 나가자는 취지로 예년보다 앞당겨 업무보고를 마쳤다"면서 "각 부처는 신속하게 보고 후속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요한 정책 내용들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한 황 권한대행은 업무보고 이후 민생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 잡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조절, 불합리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려졌다.

전민정 기자 puri21@

외교관·언론인 중심 '마포 캠프' 시동

김숙 실무총괄에 11명 멤버 상주
정진석·나경원도 조만간 합류할 듯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귀국 이후 마포 대선 캠프를 기반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반 전 총장 측 실무진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근처 주상복합건물 트라팰리스에 자리 잡았다. 김숙 전 유엔대사를 주축으로 11명이 상주하며 반 전 총장을 돕고 있다.

반 전 총장 측 이도운 대변인은 "여기는 반 전 총장을 보좌하는 실무팀"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이곳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포팀 외에도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여의도팀'과 또 다른 실무진이 상주하는 '광화문팀'이 있다. 여기에 직능·조직 담당 '학동포럼'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마포 사무실은 반 전 총장의 개인 집무실 역할을 하며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하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반 전 총장 캠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를 중심으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실무팀을 이뤘다. 이 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곽 교수와 함께 정책적으로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정진석·나경원 의원이 반 전 총장과 함께 우선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그동안 '반기문 메신저'를 자처해왔다. 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기문 총장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보수와 중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반 전 총장뿐"이라며 "그가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野 대선주자들 '文 때리기'… 文, 나홀로 '반기문 견제'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사진〉 전 대표를 향한 야권 주자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문재인 때리기'의 선두에 선 이는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1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잖나.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패권정치도 청산 대상"이라며 "문 전 대표가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후보로 선출되면 대선 승리는 오히려 어렵다"고 했다. 박 시장의 문 전 대표를 향한 공세는 10일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부터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당시 박 시장은 "대세론은 강해 보이지만 고립된 '나 홀로 함대'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평가절하했다. 다음 날엔 "문 전 대표는 호남 분열과 당의 패권적 운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1일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을 두고 "법인세 인상이 빠져 재벌 제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대세가 유지돼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문 전 대표는 페이스메이커에 그칠 것"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0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를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수구"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러한 공세 속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유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반 전 총장에 대해서만 각을 세우는 중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제2 삼성물산 합병 차단 '이재용 방지법'

오늘의 법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산분리 강화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그 계열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 합병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졌다.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주식 4.8%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자산규모 세계 3위인 네덜란드연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에이피지(APG) 박유경 이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모두 동일하다.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中 '사드 보복'… 정부가 직접 나선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배터리 보조금 배제 조치에 산업부, 13일 '한중 FTA 공동위' 공식 문제 제기키로 전세기 불허·광섬유 반덤핑 관세 연장 등 제재 잇달아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보복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동위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공동위에서 화장품 통관 거부를 비롯해 대중국 사업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중국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통관 거부 외에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배터리 인증 문제와 한국 관광 통제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삼성SDI·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했다. 최근 중국이 수입허가를 금지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또한 최근 춘제(중국의 설) 관광시즌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항공사들이 신청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으로 가는 개인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사진 규정이 강화된 것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밖에도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 불허한 것에 대해 한·중 FTA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드 보복조치라는 주장은 과한 해석이라고 해명해 입장이 엇갈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것은 해당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이나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 중국 측의 검사가 많아지면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을 단정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미국산 달걀 샘플 오늘 도착 국내산 가금류 수출은 닫혀

정밀검사용 샘플 150kg… 판매용은 14일 200t 수입 예정 AI 여파에 홍콩 "한국산 생닭·계란 수입중단"… 확산 전망

미국산 계란 수입을 위한 검사용 샘플 계란 3000~5000여 개가 12일 오후 한국에 들어온다. 판매용 계란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총 400t이 수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미국 시애틀에서 150kg 분량의 계란을 실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이륙했다.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 계란을 수송하는 해당 화물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다.

판매용 계란은 14일부터 국내에 상륙한다. 100톤 분량(약 160만개)의 계란을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날 오후 11시 35분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14일 오전 9시 인천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어 계란 100톤 분량을 실은 아시아나 화물기도 13일 오후 4시 시카고에서 출발해 14일 오후 11시 인천에 들어온다.

대한항공은 B777 화물기로도 달걀을 100t씩 두 차례 운반한다. 15일 오전 4시 LA를 떠나 16일 낮 12시 30분 인천에 들어오는 편과 17일 오전 0시 55분 LA 출발, 18일 오전 9시 20분 인천 도착인 항공편이다.

미국산 계란 수입과 반대로 한국산 계란 수출은 활로가 막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홍콩과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한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홍콩은 2014년에도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자 한국산 생닭과 계란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2015년 수입이 전무했다가 지난해 재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이번 AI와 관련해 한국에 시도별 가금류 수입 중단을 잇달아 통보했다. 한국산 가금류 수출 재개는 AI 사태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해, 타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들의 수입중단 조치 확산 가능성도 나온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전, 해외자원개발 손 뗀다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계획 따라 濠 유연탄 광산, 국내 발전사에 매각

한국전력이 최근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을 비롯,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을 뗀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보유 중인 해외 유연탄 광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호주의 바이롱 광산의 잔여 지분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에 매각할 계획이다. 최근 한전은 호주 물라벤 광산의 지분을 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4사에 넘겼다.

또 인도네시아 유연탄 전문기업인 바얀리소스사 지분 20%는 발전 5사에, 유연탄 수출기업 아다로 에너지사 지분 1.2%는 남동발전에 각각 팔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전 원료 확보는 최종 수요자인 발전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되파는 것이어서 손실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전은 "현금매각이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발전사에 바이롱 지분 10%를 이전한 것이며, 수천억 원대 손실 발생은 아니다"라며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주식을 받고 바이롱 광산 지분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광산 개발 후 배당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손익 발생 여부는 향후 광산 자산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롱 광산 실투자비는 현재까지 4400억 원으로, 환율변동을 고려해 2016년 거래시점 원화로 환산하면 3060억 원 규모다.

한전 측은 "현재 호주 정부의 광산 인허가 절차는 정상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환경 인허가 승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1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실적 부진' 공공기관 출자사 30곳 퇴출 추진

산업부, 공공기관장 회의 3년 연속 적자·부채비 200% 부진 출자사 10% 연내 정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39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282개 출자회사를 전수조사해 이 중 경영 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 10%(28곳) 내외를 연내 정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를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하고, 매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하기로 했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익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오는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과 경영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리대상을 확정해 6월께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 기준은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과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 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20조2925억 원으로, 이 중 62.1%인 11조693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지난해 3월부터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 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채용(정규직) 인원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키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을 책정했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이 외에도 산업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할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50곳 늘린다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재 270→320개사로 확대키로 공유과제도 3305→4200건으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로 발생한 성과를 나눠 가지는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을 2019년까지 320개사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2019년)'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는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현재 270개사에서 320개사로 늘리고, 성과 공유과제도 3305건(누적)에서 42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들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 제도다. 2차, 3차 협력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계속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올해 중 185개사로 늘린다. 평가 대상 기업은 2015년 149개사에서 2016년 169개사, 2017년 185개사로 꾸준히 늘고 있다.

3차 기본계획(2014~2016년) 당시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운용된 금액은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91조 원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투자재원 출연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법인세 감면 확대와 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투자 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오늘부터 '반값'

kWh당 313.1원→173.8원 44% 인하 그린카드 사용 시 최대 72% 낮아져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44% 인하된다.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돼 72%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환경부는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인하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당 연료비는 2759원이다. 휘발유차(연비 13.1㎞·1ℓ 1499.65원 기준) 1만1448원 대비 24%, 경유차(연비 17.7㎞·1ℓ 1292.58원 기준) 7302원 대비 38% 수준이다.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이다.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다.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 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 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 100㎞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외식업종 가맹본사 갑질 막자"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영업지역 조정 가맹점과 합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갑질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앞으로 가맹본부는 광고와 판촉비용 집행내역을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고 가맹점 영업지역 조정 시에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와 원·부자재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계약갱신 시점으로 못 박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할 땐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금에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이 포함된다는 것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울 땐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특허 따고 입닦은 신규 면세점 '버스주차장 조성' 약속 안지켜

신세계·탑시티·현대·롯데 4곳 서울시 조사결과…공간 미달
"관세청 사후관리 미흡" 지적
보완계획 내달 10일까지 요구

지난해 12월 신규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이 특허심사 신청 때 약속한 관광버스주차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세계·탑시티·현대·롯데 등 4개 신규면세점의 부설 주차장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 시 제안했던 계획에 미달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초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관광버스 주차 장소로 210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164면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강남점에 개장한 신세계 면세점은 신청 때 제안한 대형 59면보다 4면을 덜 확보하고 있었다.

탑시티 면세점은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38면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설치한 공간은 절반도 안 되는 16면으로 조사됐다. 현대 면세점은 도심공항터미널 등 3곳에 59면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계획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대 면세점은 또 탄천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임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여전히 대체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신규 면세점들에 관광버스 진출입 경로와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해 주차구획을 재설치하고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롯데와 현대에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관세청에 특허심사 제안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이 특허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환경' 부문에서 교통 편리성과 주차시설 편의성을 평가하지만,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가 없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면세점에 보완 계획을 2월 10일까지 내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선애 기자 lsa@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조윤선 턱밑까지…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임박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내 적성에 딱 맞는 진로는

2017 진로체험페스티벌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디제잉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관계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해 진로체험 활동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마당도 마련했다. 이동근 기자 foto@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항목에
'광고 동의' 끼워넣기 없앤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시 선택 항목인 '광고 수신동의'란을 마치 필수사항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이 없어지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유료서비스일 경우 수신 동의 후 문자로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시 필수동의 항목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과 선택항목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란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광고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하는 피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웅 기자 cogito@

상도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 개장 눈앞

동작구, 대상지 옮겨 3월 오픈
자연훼손·조망권 등 민원해소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이르면 오는 3월 개장한다.

12일 동작구에 따르면 상도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은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생태 놀이터로, 지난해 5월 서울시 설계심의를 마치고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다. 1억9000만 원을 들이는 유아숲체험장은 흔들밧줄건너기, 호랑이발톱끼우기 숲체험 모험시설과 숲속유아쉼터, 휴게시설 등 유아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동작구청은 "상도동 서달산 일대에 1만3000㎡ 규모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 중이며 오는 3~4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착공에 들어간 이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뚜껑을 열고 보니 자연훼손이 심각하다는 구민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주민들은 동작구청은 물론 서울시청과 각종 방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전 등의 문제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구민은 "구립 유치원에 아이 숲 체험장을 조성한다면서 숲을 없애는 등 4대강 식 토목 전시행정과 같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구민 역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조망권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작구청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목재를 활용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아파트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를 구암중학교 뒤편으로 옮기기도 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지를 옮긴 이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獨 본사 임원도 기소

검찰, 수사 1년여만에 마무리
전현직 임직원 8명·법인 기소

검찰이 1년 여에 걸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레버 힐(55)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은 약식 기소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사장은 2005~13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만6317대의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26건의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머 총괄사장에게는 유로6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고, 7세대 골프 1.4TSI 인증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AVK총괄사장이던 힐 부문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2만5293대의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머 총괄사장과 공모해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골프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AVK 인증담당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임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은평·좌영길 pepe@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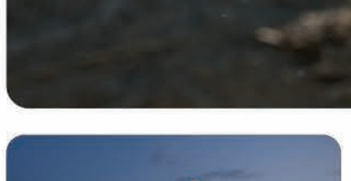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통 강화한다"던 금통위원들 여전히…

통화정책 시장 관심 높지만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
인터뷰·강연마저 자취 감춰
총재와 의사 다를까 '눈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행보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올해 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통위원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분기별로 개최했던 금통위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횟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정책 회의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기자간담회는 모두발언만 공개되고 비보도를 전제하던 기존 형식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금통위원들과 합의를 봤다"면서도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전체 발언이 공개되는 점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의 불통은 최근 일만은 아니다. 2015년 말에도 한은은 시장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부터 금통위 직후 소수의견을 당일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합류하고 난 후 8번의 회의 동안 소수의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11월 의사록을 통해 "전망이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왔지만, 이후로도 결과는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특히 작년 초까지 간간이 이어졌던 금통위원들의 언론 인터뷰와 강연마저 자취를 감췄다.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해 금통위원 강연자료는 총 6건에 그쳤다. 모두 함준호 위원 자료다. 그나마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해외행사 연설문을 제외하고는 연세대 특강자료뿐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위원들이 각 지역을 돌며 강연 및 설명회를 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은의 한 고위 임원은 "금통위원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몇 차례 전 위원들이 한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후 대외 접촉을 자제시키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통위원을 지냈던 한 대학교수는 "한은 분위기는 총재 의사와 어긋나는 발언이 나올까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금통위원들은 소명을 갖고, 시장과의 소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너무 뜨거운 우리은행장 경쟁… 11명 후보 등록

이광구 행장·이동건 부행장 선두
"설 연휴 전에 내정자 가릴 것"

우리은행장 공모에 이광구 은행장을 포함해 11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과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추천한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차기 행장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류심사 중인 임추위는 외부 전문기관 평판 조회에도 들어간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 중 임추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인터뷰를 진행할 압축 후보군(쇼트 리스트)을 추린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후 빠르면 설 연휴 전에 내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11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광구 행장과 이동건 부행장의 현직 임원 간 '리턴 매치'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4년에도 우리은행장 자리를 놓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2인자 자리인 '수석부행장' 직을 역임하고 있던 이동건 부행장을 가장 유력한 은행장으로 꼽았다. 전임자인 이순우 전 행장을 비롯한 역대 우리은행장들이 모두 수석부행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상업은행 출신의 이광구 부행장이 행장에 오르면서 '수석부행장은 행장으로 가는 직통열차'라는 공식이 깨졌다. 제7대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이광구 행장은 2015년 12월 '그룹장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수석부행장을 폐지했다. 한일은행 출신의 이동건 수석부행장은 영업지원그룹장을 맡아 수석을 뗀 부행장이 된다.

이광구 행장은 1957년생으로 충남 천안 출생이다. 천안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한국상업은행에 입행해 38년 동안 활약한 금융통이다. 이동건 부행장은 1958년생으로 경북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TK(대구·경북)다. 이 부행장은 이순우 전 행장(경북 경주)과 이종휘 전 행장(대구)처럼 TK 인사로, 이번 행장 경쟁에서 비TK와 TK 간 지역구도 또한 관전 포인트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동건 부행장

박일경 기자 ikpark@

금융위 "청와대 외압에 '금융개혁' 광고사 바꿨다"

컴투게더 발주…안종범 지시로 교체

금융위원회가 12일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광고를 컴투게더에 발주했다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막판에 업체를 바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검찰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금융위 직원에게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와 (광고계약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후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인 금융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총 3편의 TV 캠페인 광고를 제작했다. 컴투게더는 2015년 말 1편 광고를 수주했으나 완성 단계에서 탈락했다.

컴투게더는 포스코 계열사였던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곳이다. 차은택 씨가 지분 80%를 양도하라고 강요했으나 실패하자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한 '보복성 수주 절벽'에 처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ㄱ사(컴 투게더)와 ㄴ사(벨루스 커뮤니케이션)가 제작한 데모 영상을 함께 비교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내부회의를 거친 결과 ㄴ사의 제작 완성도가 더 높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금융개혁 TV 캠페인 제작업체로 선정했다"밝혔다.

그러나 컴투게더의 광고는 안 전 수석의 지시로 못 나갔으며, 벨루스커뮤니케이션은 금융개혁 광고 2편을 수주해 만들고 있다가 급하게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윤주 기자 hyj@

자살 보험금 대신 위로금? 교보생명 '꼼수' 법적 논란

미지급 17% 위로금으로 대체
"위로금은 보험법상 근거 없어 미지급과 같다" 지적 잇따라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대신 지급하려는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2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인 200억 원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이란 개념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에도 전혀 없는 개념이다. 보험약관상 손해보험에만 위자료 개념이 있지만, 이는 전체 보험금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보험금을 대체하는 위로금'은 보험업법과 약관에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금을 주고 이를 지연해서 줘서 위로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금을 위로금이 대체할 수는 없다"며 "위로금은 보험업법상 전혀 근거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로금이라는 전제 하에 2011년 이후 청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보험사들의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지워진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위로금이라면 보험업법과 무관하게 일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주는 것인 만큼 2011년 1월 이후 청구자가 아닌 미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카드를 꺼낸 것은 위로금 형식이 배임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적으론 위로금도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위로금이든 보험금이든, 회사로선 지급 의무나 책임이 없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에 이어 2011년 1월 24일 청구가 들어 온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 형식이다. 삼성생명만 아직 지급 여부나 형식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현대해상, 업계 첫 뇌졸중 보상 건강보험 판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뇌졸중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 시 보험료를 낮춰 주는 간편심사보험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을 보장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고 재발률이 높은 뇌졸중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사진제공 현대해상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iCUBE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자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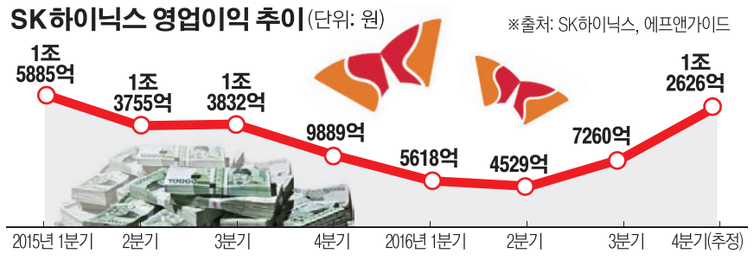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자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SK하이닉스 '1조 클럽' 복귀 눈앞

〈분기 영업익〉

작년 4분기 추정치 1조2626억
5분기 만에 1조원대 회복 전망
D램 가격상승·업황 호조 영향
올 1분기 최대 영업익 기대감도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주력 제품의 업황 호조세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할 전망이다.

12일 업계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는 1조2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벌어들인 9889억 원과 전 분기(2016년 3분기) 7260억 원보다 각각 27.7%, 73.9%씩 증가한 수준이다.

HMC투자증권의 경우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영업이익 1조4500억 원도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적을 내놓게 된다면 5분기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하게 된다.

D램 가격 상승세에 따라 삼성전자도 지난 6일 영업이익 9조 원이라는 깜짝 잠정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 강세뿐 아니라 21나노 미세공정의 D램 제품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분기 20%를 넘어서며 흑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세공정 기술이 정교할수록 웨이퍼당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 21나노 공정 전환 본격화로 원가절감 폭이 커지며 수익성을 높인 것이다.

낸드플래시 부분에서는 지난해 11월 48단 3차원(3D) 낸드 양산에 돌입하며 4분기 실적에 매출이 반영됐다. 48단 제품부터 2D 낸드 플래시보다 확연한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긍정적이다. 앞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2세대(36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72단 제품 개발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경기 이천 사업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내년 수익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공장에도 1조 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 클린룸을 확장한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온 박성욱 부회장의 기조에 따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D램 마진이 30%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낸드도 가격 상승과 원가 개선 효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는 역대 최고였던 2014년 4분기 영업이익(1조6700억 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연간 7조 원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드림클래스, 꿈에 한발 가까이"

대학생 강사가 지역 중학생들에
본인의 전공정보 소개 멘토봉사
"생생체험… 진로선택에 큰 도움"

11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7년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대학전공박람회'에서 중학생들이 캠프에 참여 중인 대학생들로부터 대학 전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그룹

"저도 한번 들어볼래요!" 1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7년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대학전공박람회'. 의예과 전공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학생들이 저마다 손을 번쩍 든다. 강사로 참가한 엄준현(한양대 1학년) 씨가 직접 청진기를 귀에 꽂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박람회 부스. 국문과를 소개하던 유종훈(서강대 2학년) 씨는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는 중학생의 질문에 "작사가가 돼서 아이돌을 만날 수도 있겠죠?"라며 웃는다. 중학생들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진다.

삼성은 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중학생 1622명, 대학생 555명,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6대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대학전공박람회는 캠프에 참가 중인 대학생 강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박람회 형식으로 중학생에게 직접 소개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중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찾아가 설명을 듣고 대학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삼성 관계자는 "평소 도시에 비해 진로와 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읍·면·도서 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영학, 전자공학, 교육학에서부터 이름도 생소한 테크노아트학(연세대), 해병대군사학(단국대)까지 다양한 전공이 소개됐다. 대학생들은 직접 노트북, 태블릿PC, 스케치북 등을 이용해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다.

중학생들은 대학전공박람회가 대학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남중 1학년인 정시아(가명) 군은 "원하는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진로선택에 확실히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해본 것은 처음인데 완전 신세계였다"고 활짝 웃었다.

신상중 1학년 박소연(가명) 양은 "장래 희망이 호텔리어였는데, 이번 전공박람회에서 약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약사의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존 방식에 안주 말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취임

조원태〈사진〉 대한한공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항공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신임 사장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해 온 대한항공이 이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항공사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유가 상승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의 성장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안전과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사장은 "회사의 모든 조직이 의지를 공유하며 함께 노력해야 안전과 서비스가 담보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절차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영 환경에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업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원가 절감 방안을 찾아 수익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양호 회장 장남인 조 사장은 지난 6일 총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1일 대한항공 7대 사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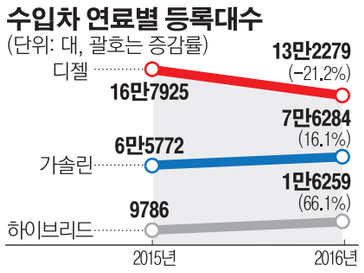
김미정 기자 mjk@

가장 가벼운 14인치 노트북 LG '그램 14' 기네스북 등재

LG전자의 초경량 노트북 '그램 14'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4인치 노트북'으로 12일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램 14'의 무게는 △13.3인치 모델이 830g △14인치 모델이 860g △15.6인치 모델이 980g이다. 특히 배터리 사용 시간을 약 12시간으로 늘려 뛰어난 휴대성을 제공한다. LG전자 모델이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초경량 그램 14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디젤게이트' 파동에 미소 짓는 일본車

작년 수입 디젤차 판매 21% 감소
일본산 하이브리드카 '반사이익'
렉서스 33%·한국토요타 18% 신장



지난해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여파로 일본산 수입차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디젤 차량 판매는 13만2279대로 전년(16만7925대)보다 21.2% 감소했다. 반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각각 16.1%, 66.1%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입차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유가 기조와 함께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맞물려 수입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최고 수혜를 얻은 업체들은 지난해 신차를 출시한 일본 브랜드였다. 폴크스바겐을 사려는 고객들이 비슷한 가격대의 일본 브랜드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카의 비율이 높은 렉서스와 한국토요타는 지난해 각각 전년 대비 33.2%, 18.4%의 판매 신장을 이뤄냈으며, 혼다코리아도 전년보다 47.1%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ES300h'을 앞세워 지난해 브랜드 최초로 국내 1만 대 판매(1만594대)를 돌파했다. ES300h는 지난해 6112대가 팔려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3위에 올랐다. 전년(5006대)과 비교하면 판매가 22.1% 증가했으며, 렉서스 브랜드 총판매 대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브랜드 가솔린 중형 세단의 판매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를 앞세워 지난해 6636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년(4511대)보다 47.1% 늘어난 수치다. 한국닛산은 주력 모델 '캐시카이'의 판매가 중단되는 악재에도 불구, '알티마'를 앞세워 판매량 감소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한국닛산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5733대를 판매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해 수입 디젤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당분간 비슷한 가격대의 일본 수입차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산 하이브리드 카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존폐 기로' 전경련, 마지막 회장단 회의?

10대 그룹 대부분 불참 의사… 차기회장 등 현안논의 쉽지 않을 듯

존폐 기로에 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허창수 회장 체제 마지막 정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전경련의 쇄신 방안 마련 및 차기 회장 선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주요 그룹 회장들 대부분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경련은 12일 오후 주요 그룹 총수들을 대상으로 정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회원사의 회장 18명과 전경련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전경련 회장단(총 20명)은 홀수 달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왔다. 격월로 회의를 열어왔지만, 최근 수년간 전경련 회장단 회의 참석률이 절반을 넘긴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정기 회장단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의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삼성과 LG, SK 등 주요 그룹들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정기 총회까지 향후 진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전경련으로서는 이번 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월로 임기가 끝나는 허창수 회장의 후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쇄신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회장·부회장의 부재 시 전경련 해체가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 쇄신안 마련과 차기 회장 선출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조한 회장단 회의 참석률 때문이다. 현재 10대 그룹 대부분이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KT, 동국제강, 풍산, 삼양 등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moon@

조선업계 임단협 '지지부진'

현대중공업 노조 새해 첫 파업
대우조선·삼성重도 진척 없어
"설연휴 이전 마무리 어려울듯"

해를 넘긴 조선사 '빅3'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새해 첫 파업이자 '2016년 임단협'으로는 16번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적어 생산 차질은 거의 없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직원들이 손을 놓으면 생산라인 전체가 올스톱되지만, 선박은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먼저 하면 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말 교섭에서 노조에 △월평균 임금 3만9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평균 임금 9만6712원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여기에 분사에 따른 추가 구조조정도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5일 새해 첫 교섭을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고용보장과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 모두 '채권단 지원'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9월 이후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 노동자협의회는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꾸렸지만, 사측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아직 교섭위원도 정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은 올해 생사기로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 노조는 해양플랜트 호조로 경영환경이 개선될 거라 믿고 있다"며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설 연휴 이전 임단협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대한전선, 670억 규모 카타르 케이블 공급계약 해지

대한전선의 카타르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대한전선은 670억 원 규모의 카타르 수전력청 220KV 초고압케이블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4년 카타르 수전력청에 802억 원 규모의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약은 수주 종료 기간이 유가 하락 및 발주처 내부사정에 의해 한 차례 연기되며 수주에 '적신호'가 켜졌고,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에 카타르 시장에 진출한 이후 5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유럽과 일본 등의 전선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진입했지만, 130억 원가량의 수주만 이뤄진 채 계약을 종료했다.

대한전선 측은 "프로젝트 지연으로 지난 2015년 1월 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정했으나, 이후 발주처에서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 파기는 최근 중동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SOC)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회사 관계자는 "중동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대형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계약 취소 역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호텔산업 5년 연속 '부동의 1위'… 불황 속 품질경영 빛났다

한국생산성본부 2016년 국가고객만족도 평가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과 함께 국내 73개 업종, 314개 기업(대학 포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호텔신라가 종합점수 8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1위 업종은 82점을 기록한 호텔이었으며, 80점을 기록한 면세점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NCSI는 2015년(74.1점)보다 0.6점(0.8%) 오른 74.7점으로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 1~11위를 차지했던 호텔들은 2016년에도 1~6위를 휩쓸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업종별 NCSI점수는 최고 82점에서 최저 68점의 분포를 보이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는 14점으로 전년보다 3점 감소했다. 2011년에는 아파트(7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에 호텔이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뒤로 올해에는 호텔이 전년 대비 2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5년 연속 가장 높은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면세점이 80점, 병원이 78점으로 평가됐으며, 사립대학교가 68점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품질 향상, 소비자 만족 상승 이끌어 = 2015년 대비 NCSI 점수가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면 총 조사대상 업종 73개 가운데 39개 업종(53.4%)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PC의 고객만족도는 전년 대비 4점 가량 상승하면서 77점을 기록했다. 라인업 확장을 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충분히 구축한 점, 경량화에 따른 이동편의성, 해상도 향상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오픈마켓의 경우,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상품·브랜드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야간 상담, 글로벌 채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객들의 상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배송서비스, 고객 실수 보상 서비스 등 고객 관리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 경쟁 기업 및 경쟁 업종(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고객만족도 점수 향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성장에 포지셔닝 약화, 고객만족도 하락 = 2015년 대비 NCSI 점수가 하락한 경우, 총 조사대상 업종 73개 가운데 9개 업종(12.3%)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커리 업종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성장세가 벽에 부딪힌 가운데 윈도우 베이커리나 백화점 입점 베이커리 등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경쟁자들이 꾸준히 영역을 넓히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객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모두 카페형 매장의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기존 커피전문점과 최근 증가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이에서 뚜렷한 고유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호텔신라 전경

73개 업종서 314개 기업 평가
평균 74.7점 전년보다 0.6점↑
호텔신라 종합점수 85점 '1위'
베이커리·소셜커머스 업종 등
9개 업종서 고객만족도 하락

소셜커머스의 경우,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가격 대응으로 소셜커머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고객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의 고객만족도 역시 하락했다. 이는 총 74점으로 전년 대비 1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종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실손의료보험에 한해 2018년 완전 폐지 예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급증했고, 실제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올해 초 일제히 20~30% 인상됐다. 그 밖에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올해 생명보험 고객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NCSI는 전반적 만족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등 3개 대용 변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고객 기대 수준, 고객 인지 품질, 고객 인지 가치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NCSI 조사는 면접원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다. 또 3단계에 걸친 설문·데이터 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검증 1단계에서는 설문에 대해 전화로 응답자 및 응답 내용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업종별 담당자가 전체 설문에 대해 설문 문항 간 논리성을 확인하고, 실사 면접원의 설문 임의 수정 여부 등을 살핀다. 최종 3단계에서는 설문 데이터의 통계적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NCSI 점수가 산출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NCSI 업종별 10년 이상 연속 1위 기업

업종	1위 기업	점수	연속 년수
아파트	삼성물산	81	19년
우유발효유	한국야쿠르트	78	
이동전화서비스	SK텔레콤	76	
유선전화	KT	76	18년
손해보험	삼성화재	76	16년
TV	삼성전자	77	14년
백화점	롯데백화점	76	
남성정장구두	금강제화	78	13년
생명보험	삼성생명	75	
개인용컴퓨터	삼성전자	76	12년
남성정장	삼성물산	76	
검색포털	네이버	77	11년
에어컨	LG전자	77	
RV	현대자동차	75	
세탁기	LG전자	75	
사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77	10년
택배	우정사업본부	76	
스마트폰	삼성전자	77	5년 (피처폰 14년)
대형승용차	현대자동차	77	5년 (승용차 11년)
준대형승용차	현대자동차	76	
준중형승용차	현대자동차	76	
증권·위탁매매	삼성증권	76	4년 (증권 7년)
증권·금융상품매매	삼성증권	76	

※같은 연속 년수 내 동점일 경우, 소수점 점수를 반영해 순서 배치

2016년 NCSI 순위 및 점수

순위	기업(Company)	업종(Industry)	NBCI Score
1	호텔신라	호텔	85
2	롯데호텔	호텔	84
3	조선호텔	호텔	83
4	인터컨티넨탈호텔	호텔	82
5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82
6	더플라자	호텔	82
7	신라면세점	면세점	81
8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81
9	JW메리어트호텔서울	호텔	81
10	삼성물산	아파트	81
11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80
12	롯데면세점	면세점	80
13	세브란스병원	병원	80
14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80
15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80
16	리츠칼튼호텔	호텔	80
17	서울성모병원	병원	79
18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79
19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9
20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79
21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9
22	삼성서울병원	병원	79
23	경희의료원	병원	78
24	서울대학교병원	병원	78
25	벨레상스서울호텔	호텔	78
26	샤넬	여성용화장품	78
27	한국야쿠르트	우유발효유	78
28	서울아산병원	병원	78
29	LG전자	냉장고	78
30	금강제화	남성정장구두	78
31	현대자동차	대형승용차	77
32	성균관대학교	사립대학교	77
33	VIPS	패밀리레스토랑	77
34	삼성전자	냉장고	77
35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7
36	아모레퍼시픽	여성용화장품	77
37	GS홈쇼핑	TV홈쇼핑	77
38	삼성전자	스마트폰	77
39	네이버	검색포털	77
40	삼성전자	TV	77
41	코웨이	정수기	77
42	아시아나항공	국내항공	77
43	애플	태블릿PC	77
44	LG전자	에어컨	77
45	현지에스콰이아	남성정장구두	77
46	롯데주류	맥주	77
47	서울우유	우유발효유	77
48	G마켓	오픈마켓	77
49	쿠쿠전자	전기밥솥	76
50	GE	냉장고	76
51	애플	스마트폰	76
52	남양유업	우유발효유	76
53	전북대학교병원	병원	76
54	롯데백화점	백화점	76
55	월풀	냉장고	76
56	구글코리아	검색포털	76
57	삼성전자	개인용컴퓨터	76
58	T.G.I. 프라이데이스	패밀리레스토랑	76
59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76
60	옥션	오픈마켓	76
61	하이네켄	맥주	76
62	카카오	검색포털	76
63	대한항공	국제항공	76
64	삼성전자	태블릿PC	76
65	롯데마트	대형마트	76
66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6
67	롯데홈쇼핑	TV홈쇼핑	76
68	삼성전자	에어컨	76
69	기아자동차	대형승용차	76
70	CJ오쇼핑	TV홈쇼핑	76
71	매일유업	우유발효유	76
72	현대홈쇼핑	TV홈쇼핑	76
73	삼성증권	증권 위탁매매	76
74	애슐리	패밀리레스토랑	76
75	KT	유선전화	76
76	오비맥주	맥주	76
77	SK텔링크	국제전화	76
78	소다	남성정장구두	76
79	고대안암병원	병원	76
80	삼성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6
81	현대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6
82	대한항공	국내항공	76
83	SK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	76
84	하나투어	여행사	76
85	빙그레	우유발효유	76
86	KB국민은행	은행	76
87	LG전자	김치냉장고	76
88	탠디	남성정장구두	76
89	현대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6
90	교보문고	대형서점	76
91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6
92	삼성물산	남성정장	76
93	LG전자	TV	76
94	롯데주류	소주	76
95	농심	라면	76
96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76
97	롯데렌탈	렌터카	76
98	롯데아사히주류	맥주	76
99	청호나이스	정수기	76
100	삼성화재	손해보험	76
101	현대자동차	소형승용차	76
102	우정사업본부	택배	76
103	SK브로드밴드	IPTV	76
104	영원아웃도어	아웃도어의류	76
105	엘칸토	남성정장구두	76
106	디아지오	맥주	76
107	롯데칠성음료	음료	76
108	11번가	오픈마켓	76
109	SSG닷컴	인터넷쇼핑몰	76
110	KT	인터넷전화	76
111	현대자동차	RV	75
112	일본항공	국제항공	75
113	기아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5
114	미래에셋대우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115	코스트코홀세일	대형마트	75
116	GS칼텍스	주유소	75
117	이마트	대형마트	75
118	홈앤쇼핑	TV홈쇼핑	75
119	우정사업본부	우편	75
120	홈플러스	대형마트	75
121	르노삼성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5
122	비씨카드	신용카드	75
123	모두투어	여행사	75
124	LG U+	IPTV	75
125	상수도	상수도	75
126	하이트진로	소주	75
127	동부화재	손해보험	75
128	미래에셋대우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129	현대백화점	백화점	75
130	CJmall	인터넷쇼핑몰	75
131	KT	국제전화	75
132	한국지엠	준대형승용차	75
133	NS홈쇼핑	TV홈쇼핑	75
134	LF	남성정장	75
135	LG전자	세탁기	75
136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75
137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75
138	LG U+	국제전화	75
139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75
140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75
141	LG전자	개인용컴퓨터	75
142	삼성전자	세탁기	75
143	롯데시네마	영화관	75
144	한국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145	쿠첸	전기밥솥	75
146	LG생활건강	여성용화장품	75
147	SK에너지	주유소	75
148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75
149	미래에셋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150	KB손해보험	손해보험	75
151	르노삼성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5
152	하이트진로	맥주	75
153	무학	소주	75
154	전력공급	전력공급	75
155	반디앤루니스	대형서점	75
156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5
157	기아자동차	소형승용차	75
158	팔도	라면	75
159	키움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160	쿠쿠전자	정수기	75
161	쌍용자동차	대형승용차	75
162	SK네트웍스	렌터카	75
163	한국화장품	여성용화장품	75
164	LG U+	인터넷전화	75
165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75
166	오뚜기	라면	75
167	코카콜라음료	음료	75
168	한국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169	동양매직	정수기	75
170	GS SHOP	인터넷쇼핑몰	75
171	현대Hmall	인터넷쇼핑몰	75
172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의류	75
173	KT	IPTV	75
174	블랙야크	아웃도어의류	75
175	CJ대한통운	택배	75
176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5
177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75
178	롯데닷컴	인터넷쇼핑몰	75
179	코오롱인더스트리	남성정장	75
180	롯데아이몰	인터넷쇼핑몰	75
181	HP	개인용컴퓨터	75
182	전남대학교병원	병원	75
183	삼성생명	생명보험	75
184	현대해상	손해보험	75
185	코리아나화장품	여성용화장품	75
186	기아자동차	경형승용차	75
187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75
188	싱가포르항공	국제항공	75
189	LG전자	스마트폰	75
190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	75
191	신한은행	은행	75
192	영풍문고	대형서점	75
193	삼성카드	신용카드	75
194	기아자동차	RV	75
195	LG전자	제습기	75
196	기아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5
197	타이항공	국제항공	75
198	네파	아웃도어의류	75
199	쿠팡	소셜커머스	74
200	동아오츠카	음료	74
201	한국철도공사	철도	74
202	삼양식품	라면	74
203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74
204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74
205	금복주	소주	74
206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74
207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74
208	위닉스	제습기	74
209	NH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4
210	우리은행	은행	74
211	KB국민카드	신용카드	74
212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74
213	AJ렌터카	렌터카	74
214	TG삼보컴퓨터	개인용컴퓨터	74
215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4
216	현대캐피탈	렌터카	74
217	S-Oil	주유소	74
218	해태htb	음료	74
219	마산대학교	전문대학	74
220	현대카드	신용카드	74
221	한국지엠	준중형승용차	74
222	한국씨티은행	은행	74
223	KEB하나은행	은행	74
224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74
225	KT	이동전화서비스	74
226	오텍캐리어	에어컨	74
227	웅진식품	음료	74
228	교보생명	생명보험	74
229	메가박스	영화관	74
230	CJ CGV	영화관	74
231	신한카드	신용카드	74
232	케이투코리아(K2)	아웃도어의류	74
233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4
234	미래에셋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4
235	대유위니아	에어컨	74
236	버거킹	패스트푸드	74
237	KT&G	담배	74
238	대유위니아	제습기	74
239	한화생명	생명보험	74
240	캐세이패시픽항공	국제항공	74
241	경희대학교	사립대학교	74
242	한국지엠	경형승용차	74
243	삼성전자	제습기	74
244	KT	초고속인터넷	74
245	KFC	패스트푸드	74
246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74
247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74
248	GS건설	아파트	74
249	충남대학교병원	병원	74
250	LG U+	초고속인터넷	74
251	LG U+	이동전화서비스	74
252	한국지엠	소형승용차	74
253	전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4
254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74
255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74
256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3
257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73
258	신한생명	생명보험	73
259	뚜레쥬르	베이커리	73
260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73
261	한진	택배	73
262	ING생명	생명보험	73
263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73
264	동부대우전자	냉장고	73
265	연세대학교	사립대학교	73
266	쌍용자동차	RV	73
267	위메프	소셜커머스	73
268	현대로지스틱스	택배	73
269	SC제일은행	은행	73
27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73
271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73
272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3
273	부산대학교병원	병원	73
274	티켓몬스터	소셜커머스	73
275	경찰행정	경찰행정	73
276	JTI 코리아	담배	73
277	BAT 코리아	담배	73
278	팬택	스마트폰	73
279	대림산업	아파트	73
280	세무행정	세무행정	72
281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2
282	충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2
283	숙명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2
284	롯데건설	아파트	71
285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71
286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71
287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71
288	서강대학교	사립대학교	70
289	현대건설	아파트	69
290	대우건설	아파트	69
291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69
292	고려대학교	사립대학교	69
293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	68
294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68
295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68
296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67
297	중앙대학교	사립대학교	66
298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66
299	청암대학교	전문대학	66
300	인하대학교	사립대학교	66
301	한양대학교	사립대학교	66
30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66
303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65
304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대학교	65
305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	64
306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64
307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64
308	건국대학교	사립대학교	63
309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	63
310	동국대학교	사립대학교	63
311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63
312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61
313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59
314	홍익대학교	사립대학교	58

※순위는 NCSI 점수의 소수점을 고려한 결과임

기아차, 업계 유일 고객인지품질 향상… 6년 만에 1위

고객충성도 57점 재구매율 1등
CUV·미니밴 등 라인업 다양해
고객불평률은 전년보다 1.4%P↓

기아자동차는 6년 만에 고객만족도 1위를 탈환했다. 기아차는 전년 대비 1점(1.4%) 상승한 75점으로 2년 연속 상승해 2010년 이후 6년 만에 고객만족도 1위에 올라섰다.

업계 유일하게 고객인지품질 면에서 전년 대비 1점(1.3%) 향상됐다. 이는 신차의 출시 등 제품 측면뿐 아니라, 과거 다소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집중해왔던 미니밴, 레저문화에 발맞춰 7인승 출시 등 고급화를 진행한 점이 작용했다. 특히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보증기간의 연장 등 과거보다 진일보된 품질을 제공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고객충성도는 기아자동차가 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차종을 보유해 향후 재구매 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는 CUV, SUV, 미니밴 등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해왔으나, 미니밴의 경우 SUV 대비 다소 합리적인 사용 목적에 집중돼 타 차종 대비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급화된 모델로 상황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업계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SUV 니로를 출시해 고객 선택 폭을 더욱 확장했다. 특히 소형임에도 넉넉한 공간과 하이브리드 차종 특징에 맞는 높은 연비, 배터리 평생보증, 중고차 가격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월 3000대 이상의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아자동차의 고객 인지 품질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인지 가치는 지난해 대비 2점(2.8%) 상승한 73점으로 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신차의 출시, 쏘렌토의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등이 기아차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고객불평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1.1%로 나타났다.

SN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사내교육 VOC 시스템 마련, 3스텝 팔로업 시스템, '원격 상담체험 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 체험교육' 등을 전개한 것이 고객불만을 효과적으로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고객충성도는 전년 대비 1점(1.8%) 상승한 57점으로 평가됐으며 고객유지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5%로 나타나 업계 내 유일하게 충성도와 유지율이 상승했다.

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SUV인 모하비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을 끌어올려 기아에 대한 지속 구매 의지를 강화한 것과 미니밴의 고급과 B클래스 신차의 출시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게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2016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번째 1위 달성!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사랑
한 분 한 분의 든든한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대형 건설사 '미청구공사 악몽'에 시달리더니…

이번엔 '매출채권' 새 뇌관 되나

미청구공사 금액 줄자 매출채권 늘어
9개 건설사 작년 3분기 누적 26조 육박
현대건설 6조 최대…GS·대우 뒤이어
대손충당금 부족…부실 리스크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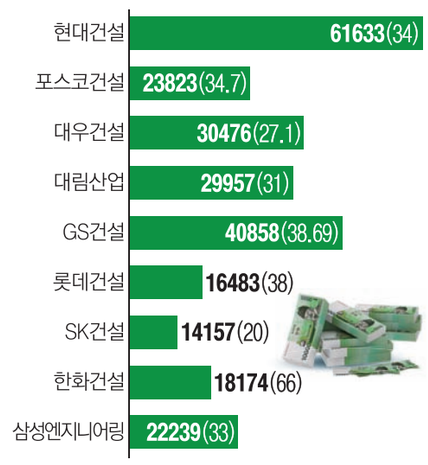
금융당국이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감시를 강화하면서 미청구공사 금액은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매출 채권은 오히려 증가해 새로운 부실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 9곳의 2016년 3분기 말 기준 누적 매출채권은 총 25조7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6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GS건설(4조858억 원), 대우건설(3조476억 원), 대림산업(2조9957억 원) 순이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가 일정 지연 등으로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돈이라면, 매출채권은 건설사가 공정률 기준으로 발주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다. 통상 3개월 안에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유기간이 6개월을 지나면 부채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형 건설사 매출채권 현황
(단위: 억원, % ,괄호는 매출대비 매출채권 비중)
※출처: 각사 공시자료, 2016년 3분기말 기준



앞서 미청구공사가 부실의 징후로 계속해 지적되자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미청구공사 잔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미청구공사 줄이기에 안간힘을 썼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채권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새로운 잠재부실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매출채권 증가세가 가파르다.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출채권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조3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8100억 원에서 65.4% 급등했다. 같은 기간 GS건설은 1조5700억 원에서 1조9800억 원으로 26.1% 증가했고, 대림산업도 1조700억 원에서 1조4200억 원으로 32.71% 늘었다.

때문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한화건설은 매출에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한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연간 매출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매출채권이 늘면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청구 금액처럼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된다. 미청구 금액을 줄이는 대신 매출채권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재무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아 놓지 않고 있다"면서 "발주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출채권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부산 마지막 대규모 택지 '일광지구'

올해만 6000가구 쏟아진다

총 7개 단지…부산 전체 분양 18% 차지
배후수요·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큰 관심

부산의 대규모 택지인 일광지구에서 올해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진다. 부산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인 데다 배후 수요와 생활 인프라까지 풍부해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 일광지구에서는 올해 총 7개 단지, 6370가구가 나온다. 일광면 삼성리·횡계리·이천리 일대 124만㎡를 신도시로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곳에서만 올해 부산 전체 분양물량(3만5261가구 예정)의 18%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일광지구는 업계는 물론 투자자와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이전부터 집중돼 왔다. 지난해 진행된 상업용지 입찰에서 최고 낙찰률이 382%를 기록했고, 앞서 2015년 하반기 이뤄진 공동주택용지 경쟁입찰에서는 8개 필지를 두고 경쟁입찰을 벌여 동원개발과 한신공영, 라인건설 등이 주인이 됐다. 3·5·6블록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은 대림산업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일광지구는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가 올해 분양 단지 161개 단지(13만2194가구) 중 자사 회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공공택지 10위권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고양 지축지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광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올해만 6000가구가 넘게 공급되는 마지막 대규모 택지인 데다 장안산업단지와 정관신도시, 고촌·내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동부산관광단지와 가까워 주거 수요가 풍부해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주변에 잘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분이면 부산 해운대와 울산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향후 포항까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일광역이 작년 12월 개통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까지 택지 개발을 중단하면서 택지지구 자체가 희소가치가 높아진 데다 산단과 신도시, 관광단지 조성 등의 정책과 맞물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대림산업이다. 오는 4월 3블록에서 913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신공영은 올해 12월께 1219가구 규모의 한신휴플러스를 8·9블록에서 분양하고, 이보다 앞선 9월엔 라인건설이 10·12·13블록에서 1857가구를 공급한다. 10블록은 임대주택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도 1547가구(5·6블록)를 분양한다. 동원개발도 연내 1블록에서 834가구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LH, 행복주택 4972가구 오늘부터 청약

서울 오류·인천 서창2 등 9개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오류, 인천 서창2 등 9개 지구에서 총 497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 지구는 △서울 오류 △인천 서창2 △목포 용해 △익산 인화 △부산 용호 △성남 단대 △춘천 거두 △의정부 민락2 △대구 테크노 등 총 9곳이다.

서울 오류, 인천 서창2, 목포 용해, 익산 인화, 부산 용호, 성남 단대, 춘천 거두 지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의정부 민락2와 대구 테크노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신혼부부,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주택 청약과 입주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주 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입주대상 폭을 확대해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약은 12~16일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청약센터, 현장에서 가능하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 14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은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석진건설·동우개발·피엔지건설·녹십자이엠

건설협회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4곳 수상

대한건설협회는 10일 2016년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석진건설, 동우개발, 피엔지건설, 녹십자이엠 등 4개사에 우수상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업체들은 하도급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생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윤리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수상업체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과 상호 협력평가 신청 시 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그간 많은 건설기업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올해는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우리 건설기업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윤리경영과 나눔경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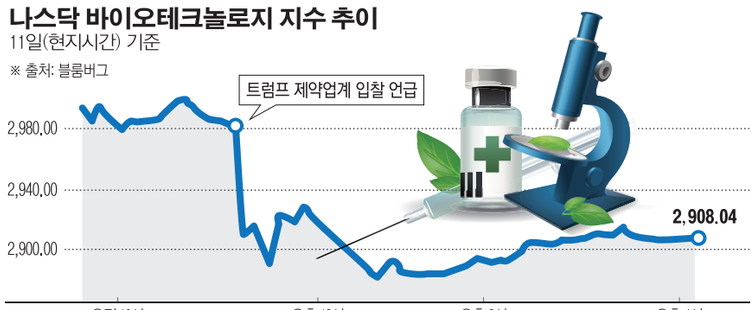
석진건설 직원, 박영광 동우개발 대표, 최삼규 회장, 홍덕기 피엔지건설 대표, 노십자이엠 직원(왼쪽부터)이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 내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트럼프 '기업 때리기' 이번엔 제약업계

당선 후 첫 기자회견

"제약사 美 생산 안해" 비난
새 입찰경쟁 시스템 만들 것
요구 수용 車업체엔 감사인사
임기 8년 의욕도 간접적 시사



자동차 업계를 줄곧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화살이 이번엔 제약업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지난해 11월 8일 대선 승리 후 처음이자 6개월 만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일자리 창출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제약산업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지난 몇 주간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멕시코 현지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 투자를 결정한 포드와 자발적으로 미국 투자를 발표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제약산업로 돌렸다. 트럼프는 "제약회사는 미국에 약을 공급하면서도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업에는 높은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제약업계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어 "(제약사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수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 입찰 경쟁은 거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약품 구매국가이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입찰 시스템이 없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업체들과 새로운 입찰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예기치 못한 직격탄에 이날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주와 제약주는 급락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는 이날 3% 넘게 빠졌고 S&P500지수의 제약·바이오·생명공학 지수는 1.8% 하락했다.

당초 제약·바이오 분야는 트럼프의 당선을 가장 반기는 업종 중 하나였다. 약값 인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정권에서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약값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를 통해 환자를 대신해 특정 약품에 대해 제조사와 약값을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 제도)는 완전히 재앙"이라면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원이 이번 주 메디케어가 아닌 정부가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2017년 예산안 수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업과 대통령직 수행 간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고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두 아들에게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두 번의 임기에 대한 의욕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영 승계와 관련해 "8년 후에 돌아와서 안 되면 아들에게 '해고야'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의 유행어를 섞어 가며 사실상 8년 임기에 대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경영 승계를 밝힌 것도 단명설에 선을 긋고 8년 임기를 위한 연막을 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중국 자동차시장의 2018년 정책 변화
※ 출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17년	2018년
소형차 감세	취득세율 기존 10%에서 7.5%로 인하해 적용	감세 종료
에코카 보조금	최대 6만6000위안(약 1145만 원)	점진적 폐지
환경규제	없음	친환경차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하지 않으면 휘발유차 판매 불허
친환경차 생산업체 수 제한	없음	신규 라이선스 얻은 업체만 가능. 약 20개 업체로 축소 예상
외자 기업의 중국 파트너수 제한	2개 까지	예외 가능 검토

중국 친환경차 고강도 규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 날벼락

친환경차 생산업체 수 20곳으로
"전기차·PHV 등 일정량 팔아라"
대기오염 심각성에 환경정책 추진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이 2018년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2018년께 친환경차 생산업체 제한과 환경 규제 강화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형차 취득세율을 10%에서 7.5%로 낮춘 중국의 감세 혜택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더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자동차업체 임원들은 "앞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중국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해 벽두부터 업체들이 이처럼 내년 시장 상황을 걱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여름 중국 정부가 업계에 통보한 한 건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향후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를 제한할 것이며, 2018년 이후에도 생산하고 싶으면 정부로부터 새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한 곳에 부패가 있다'고 불릴 정도로 인허가에 인색하다. 신문은 현재 120개에 달하는 친환경차 업체 수를 2018년 이후 20개 정도로 줄이는 방침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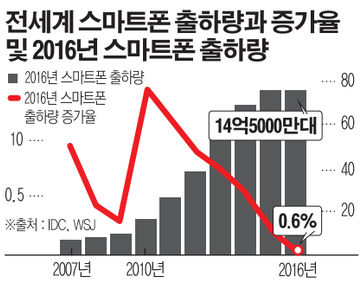
업계가 당황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 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이 규제는 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 등 환경오염이 덜한 차를 일정 이상 팔지 않으면 일반 휘발유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내용이다. 즉, 친환경차 제조업체 수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친환경차를 많이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 대책을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만연해 중국 정부는 이런 관행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키우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친환경차 생산 라이선스 제한 정책을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자국 업체 8곳에 새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에 외국 업체 사이에서는 한정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포화상태 스마트폰 시장
소프트웨어에 성패 달려

소프트웨어가 포화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시장이 생겨난 지 10년이 지났다. 혁신을 선보이며 성장세를 거듭하던 초기와 달리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0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75.8%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0%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겨우 0.6%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16년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율을 4.5%로 점쳤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전년보다 1.1%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의 포화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실적 부진과 경쟁 심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애플은 2016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기준, 15년 만에 연간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2015년과 비교해 매출 7.7%, 영업이익이 15.7% 각각 감소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맥쿼리캐피털의 벤 샤스터 선임 애널리스트는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서비스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받는 기술이 인공지능(AI)이다. 애플의 시리, 아마존닷컴의 알렉사, 알파벳의 구글어시스턴트처럼 AI 기술로 구현한 가상 비서 서비스가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애플은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에 기존의 시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잘가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마친 뒤 부인 미셸 여사, 큰딸 말리아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만 명이 넘는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임기 8년을 돌아보고 여드레 뒤 개막하는 새로운 시대에 국민의 결속을 강조했다. 시카고/AFP연합뉴스

유가 급등세… 美 정유사 대규모 투자 나선다

사우디 아시아 물량 감소에 반등
국제유가 50달러선까지 회복
"美업체 610억 달러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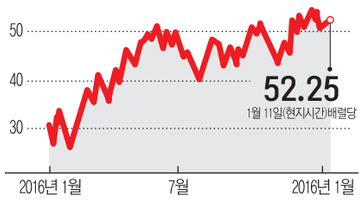
국제유가 급등세에 미국 정유업계의 투자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너지산업 전문 리서치업체 우드맥킨지는 올해 미국 석유부문의 투자액이 610억 달러(약 73조1390억 원)로 전년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글로벌 석유업계는 지난 2년간 저유가에 투자를 크게 줄여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유가 회복을 배경으로 미국,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우드맥킨지는 전망했다.

이날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약화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출처 : 블룸버그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2.8% 급등한 배럴당 52.25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고객에 2월 공급량을 약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유가 급등을 이끌었다. 영국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가격도 2.7%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1년 전만 해도 배럴당 약 26달러로 13년 만에 최저 수준에서 거래됐으나 이제 50달러 선까지 회복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재정정책인 트럼프노믹스 효과로 경기 낙관론도 커지면서 석유업계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드맥킨지 보고서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기업 경영진이 트럼프 정부하에 경제적 효과를 낙관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글로벌 석유탐사·생산 지출액은 450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어날 전망이다. 우드맥킨지는 올해 20개 주요 석유 프로젝트가 승인받아 지난해보다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맬컴 딕슨 우드맥킨지 수석 애널리스트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주 사이에 있는 퍼미언 분지는 현재 셰일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석유업체들이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언론 역할 인정한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 발표… 뉴스 리터러시 지원·WP와 협업

'페이스북은 언론사인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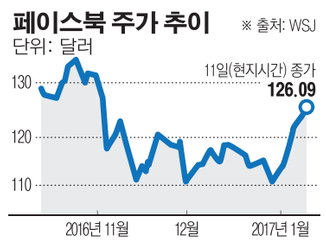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정체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표로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 프로젝트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공공 캠페인을 만들고, 비영리단체인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 리터러시란 혼탁한 정보를 가려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페이스북은 이의 일환으로 워싱턴포스트(WP), 버즈피드 등 언론사들과 협업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의 피지 시모 이사는 "더 나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는 18억 명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시행된 퓨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4%는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를 얻는다. 페이스북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의사를 밝힌 것도 정보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오랜 기간 자사를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규정했다. 세계 최대 정보유통업체 사이트이면서도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은 부정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진실을 알려주는 중재자가 되는 것을 꺼린다"며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

페이스북 주가 추이 ※ 출처: WSJ
단위: 달러



그러나 최근 몇 달 새 페이스북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대표적이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는 보도가 있었고 페이스북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셌다. 결국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 차단 서비스를 약속했다. 가짜 뉴스 제보가 들어오면 제3자 기관에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의뢰해 가짜 뉴스로 판명 시 뉴스피드 노출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진실을 판명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다던 기존의 견해를 뒤집은 셈이다. 여기에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으로 中시장 공략”

박흥렬 한코스 프라임 대표.
사진제공 한코스

‘한중뷰티’ 도전장 내민 박흥렬 한코스 대표

中로컬브랜드 한후와 맞손…현지 2만여개 유통망 활용
수익성 높은 OEM·ODM주력…올해 매출 목표 100억

“중국 기업 한후의 방대한 유통망을 이용해 현지 화장품 시장을 사로잡겠다.”

한코스 프라임 박흥렬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코스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제조업자 개발생산(ODM) 기반 화장품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방송국 드라마 프로듀서(PD)였던 박 대표는 중국으로 건너가 후난 콰이러 홈쇼핑 등 유명 홈쇼핑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지난 2006년 개국한 콰이러홈쇼핑은 중국 최초의 라이브홈쇼핑으로 박 대표 재임 기간 매출이 중국 전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8월, 중국 화장품 로컬 브랜드인 한후와 손잡고 한중 뷰티 사업을 위해 한코스를 설립했다. 주요 매출 기반은 OEM·ODM 사업이다. 한코스에서 생산 및 기획한 제품을 한후의 유통망으로 판매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은 대부분 OEM 공장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며 “현재 7~8개 공장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중소 OEM 공장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편승하기보다 확실한 시장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 매출원은 홈쇼핑 시장이 될 전망이다. 그의 화장품 사업 아이템은 오는 3월 중국에서 홈쇼핑 론칭하며 본격 판매에 나선다.

그는 “한국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위생허가 절차에만 1년이 소요된다. 똑같은 원료와 기술력으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더 빠르게 유통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 동남아 등 기타 지역 유통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 등 대형마켓 진출 후 드러그스토어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밝힌 한코스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 원이다. 그는 홈쇼핑 매출로만 약 5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여기에 해외수출, 국내 전자상거래 오픈 등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사업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sun@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명예시인’ 된다

25년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작품 번역·연구·출판 등 지원
광화문글판으로 위로 메시지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한국시인협회 명예시인’으로 추대됐다.

대산문화재단과 광화문글판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한국시인협회가 명예시인으로 추대한 것이다. 신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시인협회 신년회에서 명예 시인패를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1993년부터 25년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한국문학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산문화재단은 1992년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한국 최대 종합문학상인 ‘대산문학상’을 비롯해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외국문학 번역지원, 국제문학포럼, 대산창작기금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해외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시·소설·희곡 등 번역·출판을 지원한 작품은 490여 건, 해외에 출판된 작품은 280여 건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4년에는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 현지에 소개될 수 있도록 출판을 지원해 한국인 최초의 맨부커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아울러 1991년부터 광화문 글판을 통해 시의성 있는 글귀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고은 시인, 伊로마재단 국제시인상에

내달 3일 시상식서 시 낭송

고은(84·사진) 시인이 이탈리아 로마재단 국제시인상을 받는다.

12일 출판사 창비에 따르면 로마재단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국제시인상 수상자로 고은 시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이뤄진다. 고은 시인은 시상식에서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과 로마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기념연설과 시 낭송을 할 예정이다.

로마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시의 초상(肖像)’이라는 국제 시 축제를 열고 2014년부터는 국제 시인상을 제정해 축제 기간에 시상한다. 올해 시 축제는 다음 달 1~4일 로마 아드리아노 신전과 피에트라 광장에서 열린다. 고은 시인은 아담 자가예프스키(폴란드), 하코보 코르티네스(스페인), 캐롤 앤 더피(영국)에 이어 네 번째 수상자가 된다.

고은 시인은 오는 4월 스웨덴에서 시선집 ‘흰 나비’, ‘만인보’ 개정판을 펴내는 등 유럽 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윤홍근 회장 “치킨 먹으면서 롤 한판”

BBQ, e스포츠협회 공식후원

bbq 올리버스 공식후원 체결식에서 윤홍근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BBQ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bbq OLIVERS(bbq 올리버스) 공식 후원 체결식’을 진행했다.

11일 bbq 프리미엄 카페 종로 본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 송성창 ESC 대표, bbq 올리버스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bq 올리버스는 오는 17일에 개막하는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시즌’부터 새로운 팀명, 로고, 유니폼과 함께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윤 회장은 “비비큐가 외식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e스포츠 산업에 후원하게 됐다”며 “외식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항일 독립운동 애국지사 장영인 선생 별세

일제강점기 ‘창유계’ 조직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장영인 선생이 11일 울진 지역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24년 울진에서 출생한 선생은 1943년 3월 울진군에서 조선독립공작당과 농민조합 운동이 벌어진 후 침체한 항일운동을 부흥시키고자 애썼다.

이재선, 장영호, 김인보, 진병우 등 여러 동지와 ‘창유계’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펼치다 발각돼 일제경찰에 체포됐다. 1944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죄목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은 4남 2녀.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 빈소 서울건국대학 장례식장 특201호실, 02-2030-7900

전효점 기자 gradually@

전준혁 英로열발레단 입단
한국인으로는 두번째 단원

발레리노 전준혁(19·사진) 씨가 세계 3대 발레단 중 한 곳인 영국 로열발레단에 입단한다.

영국 런던에서 생활하는 전 씨는 케빈 오해어 로열발레단 단장에게서 공식 입단 제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로열발레 학교를 졸업한 후 8월 말에 발레단에 정식 입단하게 된다. 한해 배출되는 로열발레학교 출신 무용수 30여 명 중 2~3명만 로열발레단에 입단한다.

로열발레단 입단은 재일교포 4세 최유희 씨 이후 한국인으로는 두번째다. 2009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그는 2014년 초 영국 로열발레학교에 동양인 최초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규제완화’ 목소리 높이는 박병원 경총협회장
“기업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국내 산업계 위기의식 강조
새 먹거리·일자리 창출 필요

“한국은 예전에는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되는 게 없는 나라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병원〈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실물의 위기”라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졌던 조선·자동차 등의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일자리는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위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돈벌이와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뭔가 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예비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벌 일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벌가와 대기업을 동일시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부 파괴 행위”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대해선 “옆집에 불이 났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며 “스스로 매듭을 풀게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회장은 올해 경총 중점 과제로 노동개혁과 젊은 층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그는 “작년 과제로 제시한 호봉제의 직무·성과급제 전환은 호봉제가 이 땅에서 일소될 때까지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5월 ‘황금연휴’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박 회장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쉴 수 없는 업종도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알파고’를 대신해 수상한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조태권 광주요 대표, 골프여제 박세리,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CICI

박세리·알파고·조태권
올해 ‘한국 이미지상’

골프선수 박세리와 알파고,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 ‘2017 한국 이미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과 단체 등에 시상했다.

박세리는 2007년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공로로 한국 이미지상의 디딤돌상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펼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징검다리상을, ‘미슐랭(미쉘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받은 한식당 ‘가온’과 ‘비채나’를 운영하는 광주요의 조태권 회장이 부싯돌상을 받았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임용 △비상안전기획관 강재석

◆**병무청** ◇**과장급** 승진 임용 △정보관리과장 안종혁 △사회복무관리과장 서창률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임태군 ◇**과장급** 전보 △자원관리과장 이기 △병역조사과장 정명근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관 이우종 △경인병무청 병역판정관 조복연 △인천병무지청장 김대년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이익규

◆**KB국민은행** 〈승진〉 ◇**지역본부장** △경북2(안동) 권순보 △성남2(판교) 권학준 △강남6(선릉역) 김동록 △서초5(양재역) 김양수 △강동2(송파) 김용식 △강서·양천1(우장산역) 김지은 △강남1(신사동) 김채곤 △동부3(성수역) 김태진 △강남2(압구정서) 김필수 △영등포4(여의도) 맹진규 △경서3(마두역) 박광숙 △광주·전남8(제주) 박광재 △동부4(시가정역) 박동환 △인천북4(부평) 변동명 △부산2(사상) 성재경 △대전·충남5(당진) 손갑헌 △수원2(동수원) 신종국 △북부2(강북) 양영주 △인천남2(송도) 오세영 △인천남3(구월동) 유형산 △대전·충남2(도안가수원) 윤도원 △남부5(신림본동) 윤재원 △대전·충남6(천안백석) 윤종길 △강남4(언주로) 윤한웅 △경남4(고현) 이건섭 △영등포2(양평동) 이명철 △경남1(진주) 이상길 △서부2(상암DMC) 이옥재 △부산·울산5(달동) 이춘근 △동부5(테크노마트) 장영호 △부산5(부전동) 장은석 △서초3(서초동) 하덕일 △경기중앙2(호계동) 현창호 △동부2(청량리) 홍경표 ◇**지역본부장** 대우 △강남스타PB센터장 김교란 △서여의도영업부장 박미준 △도곡스타PB센터장 이미경 △삼성대기업금융센터장 이진형 〈전보〉 ◇**지역본부장** △강동3(문정지식산업센터) 강신주 △광주·전남2(첨단) 강종남 △동부1(장한평역) 고인호 △부천1(신중동역) 권덕현 △강서.양천2(화곡동) 김명원 △부천2(부천중앙로) 김상권 △수원4(화성향남) 김성문 △북부1(창동) 김영혜 △인천북2(가좌공단) 김정권 △부산·울산4(울산) 김종광 △수원6(평택중앙) 김태구 △충북2(서청주) 박순진 △강서·양천3(목동파리공원) 박찬용 △영등포1(구로동) 박찬일 △강동5(명일동) 백봉현 △경남5(김해) 손해락 △경기중앙6(선부동) 신병철 △중앙4(충무로역) 이광남 △경서2(일산) 이긍렬 △부산.울산2(연산동역) 이동범 △부산4(부산) 이성건 △강동1(잠실중앙) 이영관 △부천3(부천) 이재원 △강동4(길동) 이창길 △수원5(오산운암) 이충열 △부산6(범일동) 정미향 △수원3(영통) 정현호 △경기북4(구리) 조상길 △중앙5(약수역) 조순옥 △인천북1(검단산업단지) 최기덕 △경기중앙4(시화공단) 최성호 △인천남1(용현남) 하승민 ◇지역본부장 대우 △명동스타PB센터장 김광립

◆**쌍용건설** △전무 이경석 △상무 김민경 안재영 △상무보A 이상엽 이종현 유종식 △상무보B 김우상 서정호 한승표 엄경륜 손일주 신동규 황철비

◆**대한해운** 〈승진〉 △부사장 조용택(영업본부 및 영업지원실 총괄) 〈보직 변경〉 △이사 김병록(기획관리실장)

◆**연세대** △원주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이영희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엄영호 △약학대학장 한균희 △인문예술대학장 오영교 △원주의과대학장 이강현 △사회복지대학원장 겸 자원봉사센터장 강철희

◆**EBS** 〈승진〉 ◇**부서장** △방송제작본부장 이연규 △융합기술본부장 김남호 ◇부장 △방송제작기획부장 김광호 △교양문화부장 한송희 △유아어린이부장 심예원 △영어교육부장 김평진 △기술기획부장 박창홍 △제작기술부장 신상민 △영상기술부장 서상일 △미래전략팀장 고범석 〈전보〉 ◇부장 △교육다큐부장 김동관 △교육다큐부장 김동관 △라디오부장 김준범 △편집부장 정민희 △출판사업부장 전용수 △조직법무부장 강수용 △운영지원부장 이병익

◆**파이낸셜뉴스** 〈승진 및 전보〉 ◇**부장** △경제부장 김규성 ◇**부장대우** △국제부장 최진숙 △산업2부장 김기석 〈전보 및 보임〉 △정치부장(부국장대우) 조석장 △증권부장(부국장대우) 신흥범 △산업부장(부장대우) 양형욱 △오피니언부장 김충제 사회공헌 겸직 △문화스포츠부장 정순민 주말섹션 겸직

부음

▲**김영필**(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씨 모친상 = 11일, 대구 동산의료원, 발인 13일, 053-250-7144

▲**박관종**(뉴스토마토 건설부동산부장)씨 조모상 = 11일, 서울성애병원, 발인 13일, 02-844-5164

K 금주의 키워드
가화만사성

인내와 용서로만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덕담

정 숭 호
언론인·전 코스카 저널 논설주간

새해 덕담으로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제일이지 싶어요. "건강하세요"나 "부자 되세요"도 인기 덕담이지만, '식구들 모두 두루두루 화평하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될지니'라는 의미의 '가화만사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가화'만 되면 '만사성'이라는데, '건강'과 '부'는 만사의 가장 앞쪽인 1, 2위는 못 차지해도 최소한 5위 안에는 들지 않겠어요? 가족이 화목하면 돈과 건강이 따라온다는데, 건강 따로, 돈 따로 기원할 게 뭐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화만사성? 웃기네, 좋아하네. 바랄 걸 바라라"며 새해 벽두, 우리의 오래된, 해묵은, 거족적 바람을 무협지 장풍보다 더 센 콧바람으로 날려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근사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이지요.

장영혜라는 '웹 아티스트(Web Artist - 이건 또 뭐냐?)'가 신랑인 마크 보주와 함께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지난 6일 시작한 웹 아트 형식의 전시회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쉬운 비디오 자습서로 보는 삶'이라는 이름의 이 전시회는 가정·경제·정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데, 이 두 아티스트는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며 만 가지 행복의 기반인 가정을 무참히 박살내고 있다네요.

한 신문이 보도한 '가정'에 대한 전시회 내용을 전해 드리겠어요.('경제'와 '정치'는 오늘 제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새해를 맞아 모처럼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만 단란함과는 거리가 멀다. 다 큰 형제의 대화에는 서로의 약점에 대한 공격과 욕설이 난무한다. 아이들이 키우는 개는 그 와중에 자꾸 식탁에 올라온다. 은유로든 직유로든 그야말로 '개판'인 가족이다."

어떤가요? "가화를 이룬 집은 몇 집이며, 개판 아닌 집은 몇 집이나 되겠니?"라고 묻는 것 같지 않나요? 아티스트들이 말이죠. 이런 의문 때문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해 첫 아침부터 대판 싸우는 가족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탈출시켜 버젓한 전시 공간의 한 자리에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래된 진실이라면서 말이에요.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 중인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는 말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첫 줄을 비튼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이 문장은 미국의 도서·출판 단체인 '아메리칸 북 리뷰'가 '세계 100대 소설 첫 문장' 가운데 6위로 뽑기도 했지요. 이 '명문장'의 뜻은, 아마도,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수없이 많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만 부족해도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지 싶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라는 비틀기는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제각각일지라도 겉모습은 똑같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영국 소설가 살만 루슈디는 이 두 아티스트보다 먼저 이런 비틀기를 보여주었답니다.

'조지프 앤턴'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루슈디 역시 안나 카레니나의 첫 줄을 슬쩍 비친 후 "사람들은 대문을 닫아걸고 그 속의 사사로운 세계, 즉 가족의 세계에 틀어박힌다. …. 그러나 내심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 치고 평범한 일은 드물다. 오히려 난장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다혈질 아버지를, 주정뱅이 어머니를, 신경질적인 형제자매를, 정신 나간 이모를, 난봉꾼 삼촌을, 노망난 조부모를 상대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려움의 원천이며 캄캄한 혼란의 도가니이다. 평범하기는커녕 초현실적이고, 순조롭기는커녕 파란만장하고, 예사롭기는커녕 기상천외하다"고 마무리했어요.

예전 인도에서 성장했던 루슈디도 우리처럼 어릴 때 '대가족 제도'를 경험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이렇게 상세히 적어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가족에게만, 또 명절에만 이런 번잡함이 있겠어요? 아이가 하나 혹은 둘 있는 요즘 대부분의 가정, 아니 부부만 있는 가정에도 무시로 이런 불화가 생기지 않나요? 이런 세상이니 '가화만사성? 바랄 걸 바라라'는 비웃음을 비웃어서는 안 되지 싶네요.

하긴 쉬울 것 같으면 '가화만사성'이 수백 년 동안 새해 덕담으로 전해 내려왔겠어요? 괴테가 한 말로 전해지는 "왕이건, 농부건 가정이 평화로우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는 경구는 가정의 평화가 절대 쉽지 않음을 알려주며,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첫 관문"이라는 버나드 쇼의 경구도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가 천국 들어가기만큼 지난(至難)함을 전제한 것 아닌가요?

쉬울 것 같으면 '가화만사성'이 수백 년 동안 새해 덕담으로 전해 내려왔겠어요? 괴테가 한 말로 전해지는 "왕이건, 농부건 가정이 평화로우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는 경구는 가정의 평화가 절대 쉽지 않음을 알려주며,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첫 관문"이라는 버나드 쇼의 경구도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가 천국 들어가기만큼 지난함을 전제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경구들을 보면 "나는 네 집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아비와 아들, 어미와 딸을 싸움 붙이기 위해 왔다"고 하신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에 "안 그래도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거든요"라고 비틀어진 대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가화만사성'은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르는 방법이 있긴 하지요. '인내'와 '용서'가 그것인데, 그 길이 어렵고 어려우니 선인들이 보감에 편입했겠지요.

SNS 속 세상읽기

헌법 위의 '블랙'한 사람들이 만든 '블랙리스트'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예술국장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건으로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처음으로 그 존재를 시인한 것이었죠. 다만 그는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진보, 보수, 좌와 우를 떠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트위터 @kordow)

특별검사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015년 3월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최모 씨가 특정 장애인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고영태 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진위 파악에 나섰죠. 이 연극단체 대표가 세월호 관련 소식을 리트위트하고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유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사람뿐 아니라 영화도 포함됐는데요. 몇몇 외교관 증언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의 문화 행사에 청와대로부터 일종의 금지 영화 목록이 하달됐습니다. 여기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변호사'나 '광해' 등이 올라왔죠.

특검팀은 각종 블랙리스트 작성은 대통령의 묵인하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 차원의 탄핵사유가 추가된 것이다."(트위터 @sbm94power)

이재영 기자 ljy0403@

한국여성 인물사전 〈31〉헌애왕태후

음녀로 낙인찍힌 고려 최고 여성 정치가
경종의 제3비로 아들 목종 땐 섭정까지

헌애왕태후(獻哀王太后) 황보씨(964~1029)는 경종의 제3비이다. 왕이 죽은 뒤 천추전에 거처했다고 하여, 흔히 천추태후(千秋太后)라고 불린다. 아버지는 태조의 아들인 대종(戴宗), 어머니도 역시 태조의 딸인 선의왕후이다. 동성혼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 신정왕태후의 성씨인 황보씨를 칭하였다.

980년 경종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으나, 몇 개월 뒤 남편인 경종이 죽어 18세에 과부가 되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왕위에 오를 수 없어 그녀의 친오빠인 왕치(王治·성종)가 즉위하였다. 성종은 태후를 경계해 궁 밖에서 거주하게 하고, 아들을 빼앗아 자신이 궁에서 키웠다. 또한 태후의 외척인 김치양을 그녀와 '추문이 있다'는 명목으로 유배를 보냈다. 태후는 인고의 나날을 보내며 조용히 자신의 편을 만들어나갔다.

성종은 재위 기간 내내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제반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990년 태후의 아들은 마침내 개령군(開寧君·목종)에 책봉되고 정사를 돕게 되었으며, 997년 성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즉위 시 목종의 나이 이미 18세로 성인이었으나, 태후는 섭정했다. 그녀는 우선 불교와 토속신앙을 중시해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다. 또 과거를 성종보다도 자주 시행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관부와 관직을 증설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송과 거란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펴는 한편,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했다. 즉 그녀는 고려 초창기에 성종의 뒤를 이어 제반 정치제도를 정비하며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다. 1003년 태후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목종은 즉위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고, 심지어 남색을 즐겼다는 기록조차 보인다. 태후는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후사를 삼고자 왕위 계승 1순위자인 조카 대량원군을 승려로 만들고,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 하였다. 1009년 쿠데타가 일어나 목종은 살해되고, 대량원군이 현종으로 즉위했다. 태후는 고향인 황주로 내려가 20년을 더 살다가 1029년 세상을 떠났다.

태후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몹시 부정적이었다. 친척인 김치양과 관계했으며, 그 소생자로 왕의 후계자를 삼으려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정절 의식은 후대와 달리 남편의 생전에 한한다. 또 가계계승 의식도 어머니의 성을 취할 만큼 양계적(兩系的)이었다. 그녀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음녀' '악녀'로 낙인 찍혔지만, 고려시대 최고의 여성 정치가였다고 하겠다.

권순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고려 여성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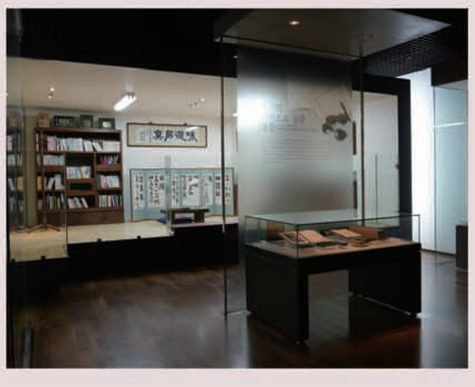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무엇으로 살까?
PART1. 별거 부부 vs 별난 부부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
PART2. 시니어타운 부부 "커뮤니티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PART3. 탐나는 인생 무대 위 부러움은 찰나, 나만의 행복은 오래오래
PART4. 결혼 2막 "아내는 제 인생의 큰 선물"
PART5. 백년해로 부부 "아직 끌어안고 자요"

창간 2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

문학관 답사기 | 황순원 문학관
소년, 소녀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어린 시절, 소설을 읽다 사랑에 빠져버린 첫 작품이 바로 〈소나기〉다. 푸르른 무밭하며 실개천 돌다리길,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소나기처럼 온몸에 녹아들었다. 애잔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소설 〈소나기〉.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따뜻함을 간직한 그곳에 찾아갔다.



선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이 풍진세상 희망가를 부르는 소리꾼 장사익
인생, 3할대만 쳐도 성공하는 거예요

파독광부 민석기씨
수천m 땅 밑에서 내가 파낸 것은 자긍심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식사가 아닌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빈더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봤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70대가 되어도 최강 동안 소리를 듣고 싶다
자기애로 똘똘 뭉친 장은숙은 고독한 생활을 즐겼다. 고독했기에 행복했고 그래서 늙지 않는 것일까. 올해로 60세인 장은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최강 동안을 자랑하며 '함께 춤을 추어요'와 '당신의 첫사랑' 등 여전히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강신영·백외섭·박종섭·정원일·박혜경 동년기자

우리 세대 이야기
성경애·김종억·이경숙·신용재·조왕래 동년기자

박원식이 만난 귀촌
경북 예천군 풍양면 시골에 사는 전용숙씨 부부
가급적 소박하게, 가급적 고요하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에세이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온 세상 덮는 흰 눈을 기다리며

겨울철에는 눈이 내려야 제맛이다. 깨끗하게 온 세상을 덮는 눈은 예로부터 시인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였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문학에 많은 힘을 쏟은 동진(東晋)의 진군(陳郡) 사씨(謝氏) 가문의 일화가 있다.

당시 동진의 가장 유명한 재상이었던 사안(謝安)이 조카들과 함께 펄펄 내리는 눈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논한 내용이, 유명 인사들의 대화만 모아놓은 책인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눈이 내리는 날, 사안은 자제들과 문장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잠시 후 눈이 더욱 크게 내리자 공(公)은 흔연히 "백설이 펄펄 날리는 게 무엇과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형인 사혁(謝奕)의 아들 사랑(謝朗)이 "소금을 공중에 뿌린다[撒鹽空中]고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형의 딸인 사도온(謝道韞)은 "버들솜이 바람에 흩날린다[柳絮因風起]는 표현만 못합니다"라고 했다. 공이 크게 웃으며 "과연 형님의 여식이다!"라고 즐거워했다.

당시에 진군 사씨 가문은 이러한 문학 집회를 자주 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의지유(烏衣之遊)'라 불렸던 당시 집회에서 마침 눈이 내리자, 가장인 사안이 자연스럽게 영설(詠雪)을 주제로 제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인 것인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 절차탁마(切磋琢磨)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한 것이다.

사씨 가문의 이러한 문학에 기울인 깊은 노력의 결과가 결국 뒷날 사혼(謝混)이라는 뛰어난 시인에 이어 마침내 사령운(謝靈運 385~433)이라는 대시인을 탄생시키게 된다. 사령운에게는 사혜련(謝惠連 397~433)이라는 요절(夭折)한 종제(從弟)가 있었는데, 사혜련이 남긴 대표작이 바로 눈을 노래한 설부(雪賦)다.

중국 역사상 눈을 노래한 문학작품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글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 잔설부(殘雪賦), 의고설부(擬古雪賦), 신설부(新雪賦) 등의 작품으로 이어졌다. 사혜련의 글 중에서 밤새 하얗게 내린 눈과, 이 눈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흰눈이 어찌나 희고 고운지) 백학이 깨끗함[鮮]을 빼앗기고, 흰 꿩이 흰 빛[素]을 잃었으며, 새하얀 비단이 그 예쁨[冶]을 부끄러워하니, 미인의 옥 같은 얼굴도 그 아름다움[姱]을 가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쌓인 눈이 녹지 않은 채 아침 햇살이 그 위를 비추면, 그 눈부신 찬란함이 마치 촉룡(燭龍)이 입에 문 여의주로 곤륜산(崑崙山)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皓鶴奪鮮 白鵬失素 紈袖慚冶 玉顔掩姱若 乃積素未虧 白日朝鮮 爛兮若燭龍銜耀照崑山]

우리나라의 한시 가운데 영설(詠雪)에 관한 시로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여성 시인 이옥봉(李玉峰)의 시가 있다. '영설'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정작 내용 중에 '눈[雪]'이라는 글자가 한 자도 나오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눈 내리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다.

雲深山徑飄如席 구름 깊은 산길에선 흩날리는 것이 마치 돗자리에 휘둘리는 듯하고,

風捲長空聚若塵 바람이 말아 올린 허공에선 휘몰리는 것이 마치 무게 없는 먼지인 듯

渚白非沙欺落雁 하얀 물가엔 모래로 속은 기러기 내려앉고

窓明忽曉恠愁人 창문 환해지니 벌써 (임 떠날) 새벽인가 근심스러운 마음 두려움으로 바뀌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엄정화, '한국판 마돈나'라고?

가수 엄정화(48)가 돌아왔다. 8년 만이다. 새 음반 타이틀은 'The Cloud Dream of the Nine'.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쓴 고대소설 '구운몽(九雲夢)'과 동명이다. 엄정화의 꿈을 귀에 쉽게 다가오는 멜로디와 가사의 디스코 곡 'Dreamer'와 몽환적 분위기의 딥하우스 곡 'Watch Me Move'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9곡 노래에 담는다.

엄정화의 가수로서 귀환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보한다. 이견은 있지만 '구운몽'을 통한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확장하고, 중견 가수의 편견을 멋지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복고 열풍으로 인해 1990년대 가수들이 속속 복귀했다. 팬덤을 일으켰던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가 해체 16년 만에 재결성된 것을 비롯해 해체한 아이돌 그룹의 재결합 바람도 거세다. 하지만 복귀한 가수와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새로운 음악적 시도나 트렌드의 진화 없이 추억팔이에 의존해 음악의 퇴행만을 불러왔다. 대중은 복귀 가수에 대해 일회용 관심만을 보이다 이내 외면했다.

하지만 엄정화는 다르다. 배우로 먼저 데뷔한 엄정화는 1993년 1집 'Sorrowful Secret'을 시작으로 가수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배우와 가수를 병행한 엄정화는 '배반의 장미' 'Poison' '초대' '몰라' 'Festival' '다 가라' '디스코'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이끌었고 시대를 앞선 실험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공연 문화를 진화시켰다. 무엇보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독창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대체 불가의 강력한 섹시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래서 엄정화를 '한국판 마돈나'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엄정화를 '한국판 마돈나'라는 수식어로 간단하게 가둘 수 없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성취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엄정화 이전의 섹시 가수 이미지의 유효성은 30대까지였다. 40대에 들어서서 섹시 콘셉트의 댄스 가수를 표방하거나 섹시 이미지를 전면에 내보이는 여자 가수는 드물었다. 엄정화는 실험성과 독창성을 담보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여자 가수의 나이와 섹시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

"저의 가수 콘셉트와 음악 활동의 모토는 섹시함이 아니니다. 노래에 맞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댄스곡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노래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섹시함만은 아니다. 일부러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섹시한 느낌은 좋아한다." 엄정화가 밝힌 섹시 이미지와 나이, 음악에 대한 생각이다.

대중의 취향과 기호는 급변한다. 대중음악의 트렌드 역시 시시각각 변한다. 변화하는 트렌드와 취향을 이끌지 못하면 가수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다. 나이라는 물리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치열한 열정,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엄정화는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이끌어왔다.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이 '옥루몽' 등 후대 소설에 영향을 끼쳤듯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돋보인 엄정화의 '구운몽'은 대중음악에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시도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踏雪)'을 떠올리게 한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금일아행적(今日我行蹟)/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인기와 명성, 나이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며 음악적 진화를 꾀하고 있는 엄정화는 이효리, 백지영 등 후배 가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 이정표가 되고 있다.

오늘의 인물 1월 12일

애거사 크리스티

뛰어난 반전과 문장이 매력인 추리소설의 여왕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1890.9.15~1976.1.12.). 그녀의 작품은 20억 부 이상 판매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라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독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추리소설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스토리와 달리, 그녀의 작품은 간명한 스토리와 평범한 일상을 바탕으로 그려진다.

"작은 마을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전에 정원사였던 키팅 씨의 조카 이야기를 해줬니?" 하는 식으로 잡담하듯 사건을 풀어가는 그녀의 소설은 범인이 우리 이웃임을 암시한다. 그런 이웃들의 내면에 도사린 살인 충동이 우연한 계기로 폭발하는 것을 세밀한 심리 묘사로 추리해가는 재능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모든 추리소설은 반전을 꾀한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트릭은 동시대 모든 반전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안이하게 끝을 맺는 순간, 글을 읽는 독자들은 미쳐버릴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대로 크리스티는 반칙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인상적인 반전을 만든다.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은 그런 반전의 백미다. 크리스티는 소설의 화자인 셰퍼드 박사, 말하자면 셜록 홈스의 모험을 기록한 왓슨 박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를 범인으로 만든다. 추리소설의 금기를 깨는 충격적 반전이었다. 그래서 사망 40년을 넘었는데도 그녀의 트릭은 매력적이다.

영국 남서부 데번주 토키에서 태어난 그녀는 소설에 'die(죽다)', 'grave(엄청난)', 'grief(슬픔)'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die' 뒤에 'grave'를 썼는데 이는 명사로 '무덤'을 의미한다. 'grief'도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상징하니 모두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중독성이 바로 문장에 있었다.

김대환 편집위원daehoan3000@

카드로 보는 세상

특이한 외모로 인기스타가 된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예쁘거나 귀여운 표정의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심술궂거나 화난 표정, 혹은 못생긴 얼굴로 사랑받는 동물들이죠. 딱히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 마치 365일 화난 것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의 고양이에서부터 뻐드렁니에 듬성듬성한 털로 못생겼지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SNS에서 인기스타 못지않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어글리 얼굴'로 스타가 된 반려동물들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fte5ob

온라인 토닥토닥

나눔의 삶 실천하는 '선행 아이돌'…"팬들의 마음도 아름다워!"

전 세계 투어와 뮤지컬 출연 수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그룹 JYJ 멤버 김준수의 선행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캄보디아의 '빌봉'이라는 오지마을은 2011년 이름이 '김준수 마을'로 바뀌었다. 김준수가 빈민촌이었던 이곳의 집들을 고쳐주고 새로 지어주자 마을 주민들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또 한 뮤지컬 공연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나비 배지'를 차고 나와 7000여 개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제민간구호기구에 사랑의 성금을 꾸준히 맡기고도 있다. 그의 선행 소식을 들은 국내외 팬들도 각각 돈을 모아 여러 단체에 후원하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네티즌은 "멋진 스타에 멋진 팬!", "스타가 함께하는 이런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했으면 좋겠네요", "훈훈한 소식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데스크 칼럼

오바마의 마지막 콘서트

배 수 경
국제부장

미국 일리노이 주(州) 주도 스프링필드에서 10일(현지 시간)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그의 '마지막 콘서트'나 다름없었다.

이곳은 오바마가 10년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역사적 장소. 1997년부터 2004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주 상원의원을 지낸 오바마는 10년 전인 2007년 2월 10일 일리노이 주 의사당에서 아일랜드 출신 록 그룹 유투(U2)의 대표곡 '시티 오브 블라인딩 라이츠(City Of Blinding Lights)'가 흐르는 가운데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도 10년 전 그날을 방불케 했다. 오바마는 "보면 볼수록 당신을 더 모르겠어요(The more you see the less you know)"란 가사로 시작되는 '시티 오브 블라인딩 라이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투 못지않은 슈퍼스타처럼 유유히 무대에 올랐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관중석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헬로 시카고!"라며 멋쩍게 화답한 오바마는 계속되는 박수갈채와 휘파람, 환호에 "댕큐"를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만 10년 전 그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관중석에서 "희망" "변화"라는 기대에 찬 단어 대신, "4년 더" "아이 러브 유(I love you)"와 같은 아쉬움 가득한 말들이 나온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야심찬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 출정식이었다면, 이날은 8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며 작별을 고하는 이별식이었기 때문이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 경력이 고작 2년에 불과했던 오바마가 대선에 출마할 당시, 정치 엘리트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변화(Change)'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오바마는 기성 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키며 결국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미국 역사 232년 만에 처음 탄생한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념비도 세웠다. 아웃사이더에 정치 신예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거머쥐며 이변을 연출한 이번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퇴임 직전 50%대의 높은 지지율에 레임덕 현상도 없었던 오바마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재선에 도전하던 2012년만 해도 미국 경제는 오바마가 첫 집권하던 초기처럼 비틀거렸다. 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와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위태로워졌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연방정부는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이뿐인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도 표류하며 사실상 재선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2기 4년간 오바마는 착실히 과제를 수행했고, 이제 8년 농사를 마무리 짓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여드레 후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오바마의 퇴장과 함께 그가 남긴 업적, 이른바 '오바마 레거시(유산)'가 트럼프 시대에도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환경보호 정책, 이란 핵 합의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의 8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날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센터에 모인 이들이 아쉬워한 것은 이런 거창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8년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인간미와 진정성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오바마에 대한 환송과 누군가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오바마에 대한 마중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오바마는 8년 전 내걸었던 구호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콘서트를 끝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변화 그 자체였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로 답했다. 훈훈한 작별식이었다. 부러웠다.

sue6870@

객석

박 동 주 골드브릭스 에프엠에스 대표

통합 시설관리가 필요한 이유

오래전부터 현대사회는 분업화, 전문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업무위임(아웃소싱)이 이뤄진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의 업무위임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형태는 아직 글로벌 사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기업이 직접 별개의 외부업체를 선정해 각각 업무위임 하는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각각의 시설관리 서비스를 분리해서 업무위임을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HP, 시스코, 씨티은행, GM, ABB 등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시설 관련 서비스를 한 개의 전문회사에 일임해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전문 시설물 관리 회사들은 기업과 통합시설관리(IFM)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IFM 회사들의 통합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글로벌 사업상 전 세계에서 통일된 시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한 개의 계약으로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기업의 일상화된 전략임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시설관리를 자회사에 맡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IFM 회사들은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해 총무·재산관리·수리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시설관리 전 부문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서비스 구매부터 비용 청구 등도 대신한다. 고객사는 IFM사에 모든 비용을 한 번에 결제하며,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 절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자수첩

황 윤 주 금융부/hyj@

인사가 만사라는데…

금융권은 지금 인사철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승진자 발표를 마무리했다. 인사는 각 조직의 운영 철학을 보여준다. 행원 인사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은 임기가 완료된 은행장, 지주회장 등 큰 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국책은행인 A은행은 행장이 직접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연초 인사에서 가장 고생한 행원들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 행원들의 업무 결과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실패하고도 승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무 평가를 떠나 적어도 은행 안팎에서는 해당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중은행인 B은행은 내부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철저하게 영업 위주로 평가하고 승진시킨다. B은행의 순이익은 항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은행의 특징은 인사철에도 뒷얘기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철저한 정량적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견이 별로 없다. 승진 누락자는 자신이 먼저 왜 승진이 누락됐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는 셈이다.

반면 경쟁은행인 C은행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뒷말이 무성하다. 계열사 업무 통합, 독립 본부장제 등 혁신적인 인사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신상필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 은행의 인사 불만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경쟁사에 비해 직원이 많아 임원들도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B은행과 C은행의 인사 정책 차이가 올해 어떤 실적으로 귀결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새해 복(福) 짓기

"새해가 왔는가 / 미처 맞이할 겨를도 없이 불쑥 / 들이닥친 길손처럼 새해는 와 버렸는가 / 어제 방구석에 쌓인 먼지도 그대로 / 내 서가의 해방기념시집의 찢어진 표지 / 그 위를 번져 가는 곰팡도 아직 못 쓸고 있는데 / 새해는 불현듯 와 버렸는가"(이동순 '새롭지 않은 새해의 시 1' 중)

준비 없이 다시 한 살이 보태졌다. 시간이 내 편인 것 같진 않지만, 적(敵)은 더더욱 아니기에 또다시 최선을 다해 살아볼 생각이다. 이맘때 중요한 게 바로 덕담(德談)이다. 가까운 이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해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담에는 상대방이 잘되기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행복하기를 비는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다.

몇 년 전부터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덕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몇몇 지인들은 "복을 받지 말고 지으라고?" 하며 의아해한다. 복을 지으라는 건, 받으라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복을 바란다는 의미다(지은 만큼 받을 수 있기에!). 주역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은 이를 잘 말해준다. 착한 일을 계속하면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까지도 미친다는 가르침이다.

'짓다(명사형 '지음')'는 내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삶의 바탕이 이뤄지면 농사를 짓고 시(詩)를 짓고 노래를 짓는다. 어디 이뿐인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고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고 표정도 짓는다. 또 외로울 땐 짝을 짓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아프거나 기운이 떨어지면 약을 짓는다.

짓다와 만들다를 섞어 쓰는 이들이 있다. 위의 문장들에 '짓다' 대신 '만들다'를 넣으면 어떨까? 밥을 만들고 시를 만들고 웃음을 만들고 짝을 만들고…. 매우 어색하다. 노력이나 기술 등을 들여 사물을 이루는 '만들다'와 달리 '짓다'는 사람이 마음과 손을 써 이룰 때 적합한 말이다. '만들다'가 '짓다'의 말맛을 대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짓다'는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한다. 갈래짓다, 결론짓다, 결말짓다, 결정짓다, 관련짓다, 규정짓다, 농사짓다, 눈물짓다, 매듭짓다, 반짓다, 종결짓다, 죄짓다, 줄짓다, 짝짓다, 척(隻)짓다, 축(軸)짓다, 특징짓다, 편(片)짓다, 한숨짓다, 환(丸)짓다, 희짓다 등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가 많아서다. 이외의 경우는 목적어 '무엇(-을, -를)'과 서술어 '짓다'를 띄어 적는다. 가장 흔한 '밥 짓다'나 '옷 짓다'가 한 단어로 인정받지 못한 게 영 아쉽다.

다산 정약용은 '중수만일암기(重修挽日菴記)'에 "집을 지을 때에 누에는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고, 제비는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하며, 까치는 열심히 풀이나 지푸라기를 물어 나르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을 모른다.(중략) 우리 인간의 집 짓는 일도 이런 하찮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맞다! 곤충도, 새도, 사람도 모두 집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집은 삶의 기본이며, 그 안에 함께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일 게다.

jsjysh@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편집인 김상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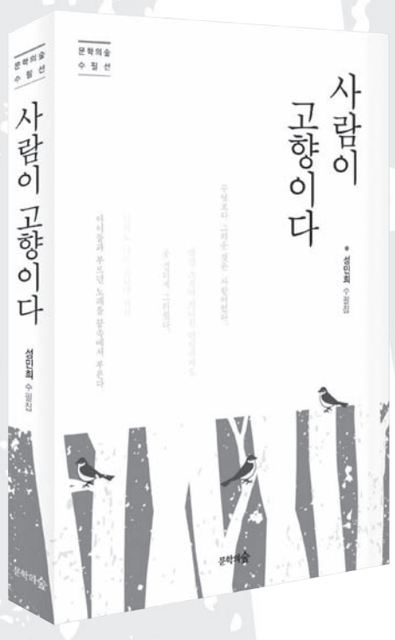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선

맛깔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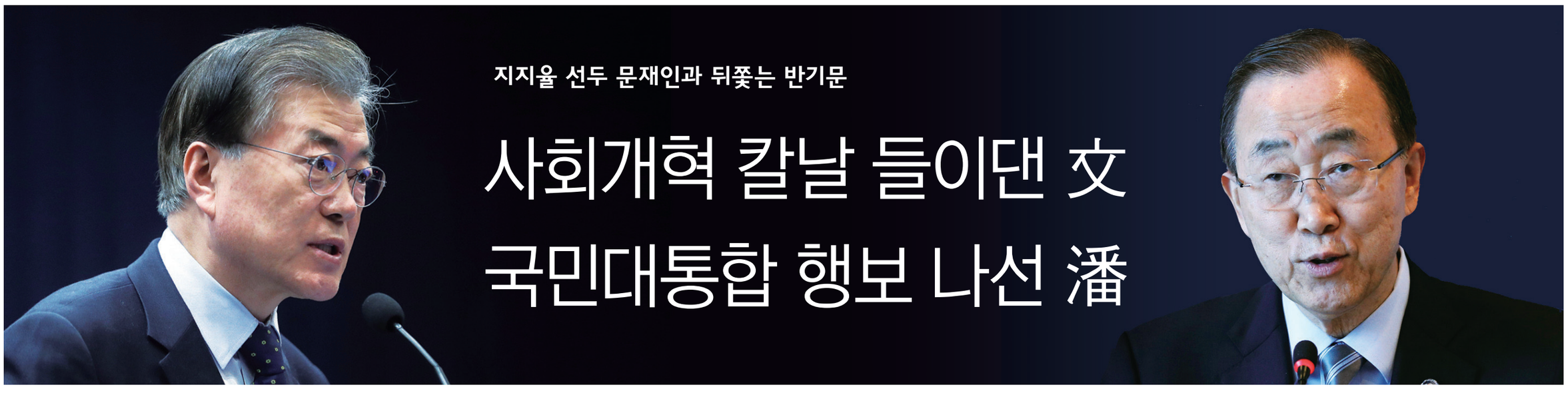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렵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 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교포 생활을 '맛깔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나 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규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점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겉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 김동혁(문학평론가)



지지율 선두 문재인과 뒤쫓는 반기문

사회개혁 칼날 들이댄 文 국민대통합 행보 나선 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대 대선 공약에서 업그레이드 한 정책 공약을 본격 열어젖혔다. 여권 및 제3지대 러브콜을 한몸에 받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아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대선 디데이(D-DAY)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일단 서둘러 일전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문재인,사회 전 분야에 '개혁'칼날 = 18대 대선에서 범야권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내놨던 공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시하며 대선주자들 중 가장 빠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의 기조연설 형식을 빌려 세 차례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 전 분야의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 즉 '국가대청소'를 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달 10일 발표한 재벌개혁안으로, 그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재벌 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지배구조 개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사회 전분야 적폐 청산 천명
재벌개혁 우선 추진…靑 집무실 이전
검찰 개혁·안보 강화… '새 시대' 방점
강력해진 공약 '준비된 대통령' 부각

반기문, 오늘 귀국 본격 소통 움직임
진도 팽목항·김해 봉하마을 방문예정
통합 앞세워 준비부족 핸디캡 상쇄
정치권 합류는 설 이후에 결정할 듯

앞서 6일 내놓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지난 공약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폐가 늘었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그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을 없애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처럼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문 전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색깔론', '종북몰이'를 '4대 안보 적폐' 중 하나로 꼽고 "군대를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이고, 국민을 편 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이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했다. 자신을 향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강한 안보'를 위해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당선 후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기문, 대통합 메시지 행보** = 문 전 대표의 정책 행보와 달리, 대선을 준비할 틈 이 상 대적으로 부족했던 반 전 총장은 일단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귀국 후 그의 첫 일성은 국민화합, 국가통합으로 이는 지난 연말부터 일관되게 그가 던진 화두다.

그는 또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소통'하는 대선주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소통하면서 화합을 이뤄내는 지도자'가 시대적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5시 30분 한국 땅을 밟는 반 전 총장의 향후 일정도 모두 이러한 메시지 전달과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 전 총장 측 이대운 대변인은 11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첫 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은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층 등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국민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의전은 줄여 지방도 놀라울 정도로 단촐하게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고민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에 따라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튿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파병 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이·박 전 대통령 묘역을 김 전 대통령 묘역과 잇달아 찾아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 팽목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 역시 방문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 전 총장의 정치적 선택은 설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 측은 "지금은 전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설날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도 뛴다" 다크호스 이재명·안철수

김미영 기자 bomnal@

캠프에 누가 몸 담고 있나

문, 국민성장·더불어포럼… 반, 외교관+MB맨

조윤제·한완상·박승 등 뒷받침… 김숙·이상일·곽승준 등 포진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 대선 캠프엔 누가 몸담고 있을까.

문 전 대표의 브레인과 참모들은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더불어포럼'에 포진해 있다.

마포에 위치한 국민성장은 '경제 중심, 중도 확장'이라는 지향점에 맞게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소장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다. 조 교수는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이자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와 함께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성장의 부소장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구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또 교육·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고문을 맡았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지냈다. 박 전 총재 역시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은 총재를 역임해 노무현 정부와의 인연이 있다.

국민성장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을 생산해낸다면, 더불어포럼은 문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 전 총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표된 캠프는 실무진 11명으로 구성된 '마포팀'이다. 그간 마포팀, 광화문팀, 여의도팀 등에 캠프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 전 총장 측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첫 언론브리핑에서 "총장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돕고자 할 수는 있으나 공식 보좌조직은 마포팀"이라고 정리했다.

마포팀은 좌장격인 김숙 전 유엔대사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곽승준 고려대 교수, 김봉현 전 호주대사 등이 포함해 있다. 이 대변인은 "김숙 전 대사는 서울에서 반 전 총장과의 연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 전 대사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꾸렸다"면서도 "외교관 프레임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총장께서 돌아오실 때를 즈음해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을 했으나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설 명절까지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이 외교관 출신인 만큼 전직 외교관 참모진의 지원은 예상됐다. 그러나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 교수를 필두로 MB맨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MB 시즌2'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사는 곽 교수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정무수석,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날 좀 보소 경쟁후보

이슈 따라 '북치기, 박치기'… 군소 후보들 '존재감 알리기'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손학규

정운찬

유승민

남경필

이인제

원유철

박원순, SNS에 "결심섰다" 출마선언
안희정 '토크콘서트' 대권도전 신호탄
김부겸 "야 3당 공동 대선후보 선출"
문재인·이재명과 민주당 경선 레이스

손학규 '제3지대' 勢모으기 본격 행보
정운찬, 비박·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

유승민·남경필 '바른정당' 창당 이후
컨벤션 효과 '潘대항마' 부상 기대감
새누리에선 이인제·원유철 출마 의사

하위권 잠룡들 '개성 있는 행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면서 정치권도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간의 양강구도 속에서 군소 후보들이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여권과 보수 성향의 잠룡 후보로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거론된다. 또 야권과 중도·진보 성향의 후보로는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꼽힌다.

◇이재명·안희정·박원순 경선 도전…손학규 제3지대 세력 연대 도모 =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잠룡들의 공식 행보는 아직 잠잠하다. 하지만 이미 대선준비 체제에 돌입하며 이슈 선점과 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작업은 분주히 벌이고 있다.

우선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2일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박 시장은 10일에는 '촛불 공동정부'를 내세워 시민사회와 전폭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오는 22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하고자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안희정과 함께 훈밥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수색이 짙은 충남에서 두 번의 도지사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영호남, 충청을 뛰어넘어 5000만의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박 시장과 안 지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와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 3위를 굳힌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치열한 경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군소 후보들은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세 불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계 개편의 한 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전 민주당 대표)은 제3지대 세력의 연대를 도모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손 고문은 이달 22일 정치결사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을 앞두고 다음 주까지 민생행보와 강연 등을 통해 보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잠룡 중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당권 불출마 선언 이후 사실상 대선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1일 문제인 독주체제를 겨냥, "단독 집권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야 3당의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달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비박 및 국민의당과의 연대설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유승민·남경필 출격 준비…바른정당 창당 이후 潘 대항마 부상 = 여권의 유력 후보는 대부분 2% 내외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군소 주자들이다. 여전히 범보수 후보군 중에서는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독주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높다지만 범보수진영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오는 24일 바른정당이 공식 창당하면 이른바 공식 창당의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은 창당과 설 연휴를 기점으로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면서 "오는 25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알렸다.

당내 경쟁자인 남 지사도 유 의원과 같은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등 다른 대권주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격행보에 나서고 있는 남 지사는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 "연정 대 독주 구도로 가야 한다"면서 "진영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최근 안희정 지사와 진영을 넘어선 공동 행보에 나서며 문재인-안희정 투톱체제에 대항한 '세대교체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면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선언했다.

한편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군이 모두 바른정당으로 옮긴 탓에 일단 이인제 전 의원과 원유철 의원만이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정 기자 puri21@

"노무현처럼…" 뒤집기 한판 노린다

16대 대선 이회창 초반 높은 지지율에도 판세 뒤집혀
'결선투표제' 현실화될 경우 예측불허 상황 올 수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2강 체제'가 사실상 거의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귀국 이후 설 연휴 전까지 야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지 못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보수층이 재결집할 경우 새로운 범여권 대선주자가 대안으로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탄핵 인용 후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당시의 국내외적 기류를 타고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도 장담할 수 없다. 20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북한의 예측불허 상황도 국내 대선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변수다.

실제 과거에도 지지율 기반이 약했던 제3의 후보가 실제 대선 무대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승기를 거머쥔 전례는 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1년 하반기. 당시의 대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가 넘은 지지율을 얻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였다. 대선 해인 2002년 초반까지도 그의 지지율은 50%까지 치솟으며 청와대행을 확정짓는 듯했다. 하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던 노무현 후보가 소위 '노풍'을 타고 민주당 경선에서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면서 대선 판세의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3월 말 이후에는 두 후보의 각축전이 펼쳐졌다. 결국 그해 대선은 노 후보의 역전 드라마로 끝이 났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 자릿수 지지율로 시작했다"면서 "여권 2위는 항상 차지했다.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17대 대선에서도 초반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대결구도가 펼쳐졌다. 대선을 한 해 앞둔 2006년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청렴 이미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고건 전 국무총리가 3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지만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야당의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차례로 1위 자리를 내줬다. 결국 17대 대선 승리 역시 여론조사 후발 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차지했다. 이후에도 2007년 '문국현' 2012년 '안철수'을 통해 늘 대선판에서는 깜짝 스타가 출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19대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황이 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일정한 득표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한성기업
Since1963

1위

고급맛살 브랜드

2016 세계 골프랭킹 1위 / 리디아 고

크래미

링크아즈텍 포스데이터 기준 고급맛살 카테고리 기준 판매 1위. "크래미"와 "Crami"는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00. HANSUNG Enterprise

지지율 30% 주자 없어…"1등 빼고 뭉쳐" 빅텐트론 동상이몽

국회 5당 체제…새판짜기 손 잡을까

20대 국회는 기존 4당 체제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5당 체제가 됐다. 그러나 올해 대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특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디에 안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연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어떤 조합이 이뤄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독주' 더민주 합종연횡 무풍지대

새누리 '불임위기'…정의당, 진보 독자노선

국민의당·바른정당 유력주자 없고 시간 촉박

반기문 영입 언급…'뉴DJP연대'로 반전 노려

안보·경제 정책 지향점 달라 회의적 시각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섯 당, 대선후보 내느냐 못 내느냐 = 아직까지 '지지율 30%'를 돌파한 대선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28.5%로 조사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4%로 나타났다.

비록 문 전 대표가 1위를 탈환했지만, 작년 말에는 반 전 총장이 1위를 차지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누구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역시 대권 기회를 노리고 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대선을 전후해 합종연횡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확실한 대선후보를 내는 당은 5당 체제의 복잡한 대선 방정식을 쉽게 풀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합종연횡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지지율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도 40%에 달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당내 인적 쇄신을 두고 갈등도 극에 달했다. 하지만 명확한 보수노선과 함께하는 지지층이 있어 합당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의당 역시 확실한 진보 노선을 갖고 독자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심상정 대표는 다음 주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경쟁에 뛰어든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이른바 '제3·제4 지대론'을 표방하는 신생 정당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존 친박(친박근혜)와 친문(친문재인)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만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 정당의 앞날은 '누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품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DJP연합과 반기문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문 전 대표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직후 대권 행보보다는 당분간 여론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일 "가급적 광범위한 사람, 그룹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한 쪽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호남 중진의원들은 반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일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뉴DJP연대론'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10일 인터뷰에서 "(반 전 총장이) 여권 후보냐, 야권 후보냐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당과 함께할 것인가는 정체성 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 전 총장을 잡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당내 반발이 부딪친 결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 역시 연대론을 언급하면서도 통일된 당론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뉴DJP연대에 대해 "이번 기회가 오히려 협치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라며 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거기에 가장 중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짧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꽃가마' 태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정책 지향점이 다른 부분도 연대론을 어렵게 한다. 양당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중도 개혁적 성향으로 법인세 인하, 재벌 개혁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안보정책에서 정통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양당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은 대선 전 합당에 대해 "정치 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한 합당이 아닌 정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억지로 이뤄지는 구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경제 못지않게 외교·안보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치 환경에서 안보관이 다른 당끼리 정책 차이를 뛰어넘어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과거 합종연횡 사례 살펴보니…

YS 3당 합당 군부세력과 결탁 평생 '꼬리표'

DJP 연대 지역주의 편승 권력 나눠먹기

"승리만을 위한 연대" 비판목소리

정치권에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0대 대선도 정당 간 통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합종연횡을 꾀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는 가운데, 과거 합종연횡 사례들을 짚어봤다.

강적에 대항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의 합종연횡. 우리 정치사에서는 'YS(김영삼) 3당 합당'과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대표적이다.

1990년 1월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출범시킨 민주자유당은 지금까지도 '구국의 결단', '3당 야합'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 12월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양김(DJ·YS)'이 분열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실상 어부지리 격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총선으로 노 전 대통령은 위기에 빠졌다. 여당인 민정당은 125석을 얻는 데 그쳤고, 평화민주당 70석·통일민주당 59석·신민주공화당 35석·한겨레민주당 1석·무소속 9석을 기록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정국 타개책으로 1989년 봄을 기점으로 '보수대연합'을 명분으로 하는 정계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다음해 1월 22일, 민정당과 통민당, 신민당이 합당해 민자당이 출범했다. 합당 출범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YS 통민당 총재가, 왼쪽엔 JP 신민당 총재가 섰다. 3당 합당은 결론적으로 1992년 14대 대선에서 YS에게 승리를 안겼다. 하지만 YS에겐 민주화세력을 배신하고 군부세력과 손잡았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게 됐다.

DJP연합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DJP는 1997년 15대 대선 당시 DJ을 필두로 한 새정치국민회의, JP를 필두로 한 자유민주연합의 연합을 의미한다. 당시 한 해 전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DJ는 대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JP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합의를 기반으로 JP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충청지역의 표를 DJ에게 몰아줬고, DJ는 DJP연합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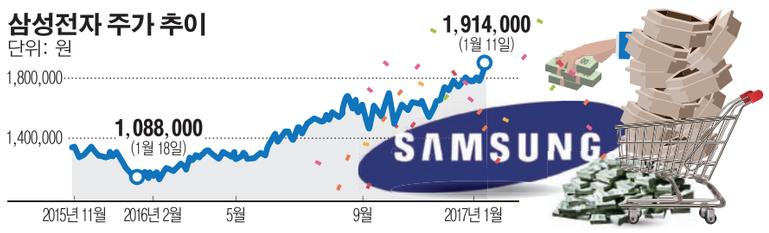
DJP연합은 DJ가 군사정권 출신의 JP와 지역주의로 연대했다는 점에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충청도 출신이다. 반 전 총장과의 '제3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정치권은'뉴 DJP연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1990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가운데)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오른쪽), 김종필 공화당 총재(왼쪽)가 민정, 민주, 공화 3당을 주축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했음을 발표한 뒤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파죽의 삼성전자, 박스피 뜯나

연일 최고가 경신에 외인 매수세
3개월만에 코스피 2070선 돌파
대형주 중심 '2200선 견인' 기대감
"착시효과일수도" 확대해석 경계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상승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070선을 돌파했다. 지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최근 4~5년간 2200선 아래에 형성된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에 긍정적 전망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0.05포인트(1.47%) 상승한 2075.1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07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7월 21일(2083.62)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는 191만4000원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따른 시총 상위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에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4860억 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다. 이 중 4185억 원이 대형주 매수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1조8569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온건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박스피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 내부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지수 상승의 힘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지수를 끌어당기면서 예전과는 다른 힘이 나오고 있다. 박스피 상단 2200선 돌파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은 기업별, 업종별 수익 사이클이 유지되면서 미 금리인상 등 대외적 악재에도 주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센터장은 "대형주의 주가 상승 요인이 글로벌 잠재 리스크보다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12일 새벽(한국시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중국과의 마찰 등 민감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팀장은 "트럼프의 경기부양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박스피 탈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 코스피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실물 경제 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형주 상승에 현혹돼 자칫 제대로된 대응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깜짝 어닝서프라이즈에 따른 단기 급등 현상에 시장 전체가 따라가는 모양새"라며 "정치적 이슈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무조건적인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두선·유혜은 기자 sun@

증권사, 금리상승 직격탄 4분기 채권 손실 3000억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나타난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보유 비중이 높은 국내 26개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손실 규모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유효등급을 부여 중인 26개 증권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증권업계의 채권평가 손실액이 이같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순이익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 1~9월 증권사 누적순이익(1조5823억 원)의 19%, 분기 평균 순이익(5274억 원)의 58% 수준이다.

대형사들의 채권평가 손실액은 업체당 256억 원으로 중대형사 102억 원, 중소형사 22억 원보다 컸다. 하지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채권 외에 수익 기반이 부족한 중소형사일수록 더 컸다. 대형사들의 채권평가 손실 예상액은 작년 1~9월 분기 평균순이익(418억 원)의 61.2%였던 반면, 중소형사들은 분기 평균순이익(27억원)의 80.1%에 달했다.

나이스신평은 분석 대상 증권사 중 7곳의 경우 채권평가손실 때문에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혁준 나이스신평 금융평가 1실장은 "지난해 4분기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손실 추산액은 자기자본 대비 0.7%, 보유채권 대비 0.2% 수준"이라고 전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檢 "현대證 고가인수 아니다"… 한숨 돌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 '통합 KB證' 고발 배임혐의 각하

지난해 현대증권 고가 인수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윤종규〈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

1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윤 회장을 비롯해 윤경은 KB증권 대표(당시 현대증권 대표), 각 회사 이사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법인 책임자 등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 회장 등이 현대증권 지분을 고가로 인수하고 퇴직 임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 지분의 시가 3800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4941억 원임에도, KB금융은 7500억 원이나 더 비싼 1조2500억 원에 인수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 회장이 현대증권 지분도 저가 인수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KB금융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5380만410주)를 1조2500억 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로의 피인수가 결정된 후 노치용 전 KB투자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KB금융은 현대증권 자사주 1671만여 주(7.06%)를 1071억 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는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22.56%의 지분 인수가격 2만3000원과 자사주 인수가격 6410원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염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수희망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라고 판단한다"며 "자사주 매각 역시 금융위 고시 규정에 따라 처분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김경아·정다운 기자 kakim@

정찬우號 100일 '내강외유'

〈한국거래소이사장〉

지난해 10월 5대 이사장 취임
조직개편·효율성 높아졌지만
예산권 쥔 금융위 영향력 여전
성과연봉제 눈치보기 아쉬워

정찬우〈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5일 취임 후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반면 여전히 금융위원회라는 지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 낙하산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거래소 직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우선 회의를 없애는 등 신속한 업무 진행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리 보여주기식 이벤트인 외부 행사도 상당히 줄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에 이뤄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임원진을 대폭 물갈이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팀별 단위로 160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거래소의 한 직원은 "노조를 비롯해 상당수 직원들이 상무급 임원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방식은 다소 파격적이었지만 방향성은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부팀장급까지 파격 인사를 기대했던 직원들의 경우 실망감도 있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직원들은 금융위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실제 정 이사장을 비롯한 거래소는 금융위 눈치 속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금융위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차별화된 과감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즉, 금융위가 요구하는 시장(코스피, 코스닥)별 거래세 경쟁,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ATS) 경쟁에 앞서 이에 알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0.3%)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거래세는 선진시장은 물론 아시아 신흥국 평균수준(0.2%)보다 높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ATS가 전체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 활성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는 유동성을 확대하며 해외에서 성장 배경이 된 고빈도 매매가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당국은 고빈도 매매에 대해 과도한 시장 효과, 불공정 거래에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중이다.

직원 소통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다. 티타임 등 개별 면담은 물론 노사협의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성과연봉제 반대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 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거래소와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 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강경책을 고수했던 최 전 이사장과 달리 현 이사장의 소통 노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융위의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회유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우려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미 대선후보 힐러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33% 확대"
빌 게이츠 등 '청정에너지'에 200억 달러 투자
네덜란드 202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허용 추진

봄의 미세먼지, 여름의 누진세 등 생활밀착형 문제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까지 해결해줄 '에너지 혁명'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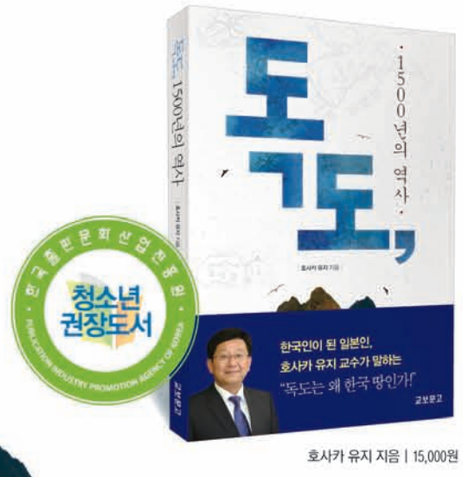
에너지혁명 2030

토니 세바 지음 | 박영숙 옮김 | 15,000원

한국인이 된 일본인이 말하는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

말만으로는 나라의 땅을 지킬 수 없다.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증명하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 1500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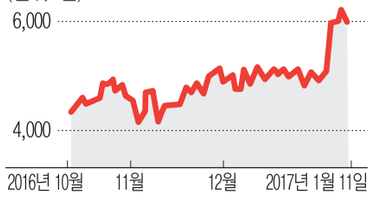
호사카 유지 지음 | 15,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알에프텍 새 먹거리로… 여행·숙박 플랫폼 서비스

알에프텍 주가 추이
(단위: 원)



美레저링크와 아시아지역 독점 사업권 획득계약 체결
"기존 사업 성장한계 극복…신규사업 통해 수익 기대"

모바일기기 부가장치 생산·판매기업 알에프텍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미국 레저링크 홀딩스(LEISURELINK HOLDINGS, 이하 레저링크)의 아시아 독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알에프텍은 세계 최초로 여행·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레저링크와 아시아지역의 여행·숙박 플랫폼 및 예약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사업을 위해 아시아 독점 사업권 획득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레저링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여행·숙박 플랫폼 '트립 클라우드(TRIP CLOUD)'의 스마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 베타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호텔,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종류의 여행·숙박 상품을 보유한 고객사들은 트립 클라우드 플랫폼에 단 1회 등록만으로 레저링크와 제휴된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등 전 세계 50여 개의 메이저 숙박예약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일괄 등록·관리된다.

레저링크의 고객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행·숙박 상품들의 예약 현황, 매출, 정산, 마케팅 데이터, 200만여 개의 게스트하우스 예약서비스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레저링크는 윈덤그룹, 힐튼그룹,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호텔 그룹 및 숙박전문사이트를 비롯해 아마데우스 IT 그룹, 구글 등의 메이저 기업들에 통합예약엔진, 토큰화 결제시스템 등 핵심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여행, 숙박업체들이 그동안 고심했던 저효율, 고비용 마케팅 환경에서 탈피해 트립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존 사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과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알에프텍은 아시아 독점 사업권 획득과 관련해 이미 투자자금을 집행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레저링크의 미국 본사 지원을 받아 트립 클라우드 아시아 전용 여행·숙박 플랫폼을 구축, 1차로 국내 포털업체 및 분야별 숙박예약 메이저 사이트에 관련 솔루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로 라이선스 사업자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에 따르면 여행·숙박 플랫폼 사업은 시장 규모가 2025년 3350억 달러(약 4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경남에너지 인수' 자본력이냐 운영력이냐

예비입찰 통과 6곳 실사돌입
맥쿼리PE 펀드잔액 6000억
강남서 실전경험도 있어 '유력'
충남도시가스 유일한 SI 주목
최근엔 케팔인프라펀드 부상

경남에너지 인수의 1차 관문인 예비입찰을 통과한 후보군 6곳이 이번 주부터 예비실사에 돌입함에 따라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중대형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조만간 매물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남에너지 매각의 향배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경남에너지 적격 예비 후보인 충남도시가스, 이큐파트너스, 맥쿼리PE, 싱가포르 케팔인프라펀드, 호주 프로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 잇달아 재무실사에 착수했다.

일부 외국계의 경우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4~6주에 걸쳐 예비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비실사의 초점은 미래매출의 확정성과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연속성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후보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곳은 맥쿼리PE다. 강남도시가스를 인수해 도시가스업을 영위해 본 실전 경험과 함께 펀드 잔액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풍부한 자본력을 앞세워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인 것.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SI)인 충남도시가스가 맥쿼리 대항마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충남도시가스는 대전지역의 맹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사업 운영 능력이 돋보이지만 자금 여력이 아킬레스건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충남도시가스의 2015년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125%,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7억 원 수준이다.

초반 판세 분석을 놓고 보면 맥쿼리의 낙승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의 케팔인프라펀드가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승자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케팔인프라펀드는 싱가포르 1위 선박회사인 케펠그룹의 계열사로 남해에 위치한 경남에너지를 인수해 에너지사업과 함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라며 "사실상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관계사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인수가 책정에 공격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IPO IT솔루션 전문 '모비스'

'시설물 정밀제어시스템' 분야 개척
상장발판 인공지능 제어솔루션 주력

3월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
핵융합실험로 200억 수주
지능형 제어 '모아이' 개발
스마트팩토리·교통망 활용

초정밀 제어솔루션 분야에서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모비스가 기술특례 상장한다. 모비스는 오는 3월 하나금융8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장 간담회에서 김지헌〈사진〉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기존에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밀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비스는 2000년에 설립된 IT솔루션 전문기업으로 10여 년간 축적된 IT기술과 기초과학의 융합을 통해 빅사이언스 시설물 정밀제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모비스는 2012년 9월에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중앙제어시스템을 국제입찰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이 연합해 프랑스에 건설 중인 약 20조 원 규모의 국제 과학프로젝트 ITER의 제어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ITER와 관련, 약 200억 원 규모의 정밀제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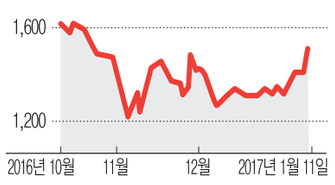
또한, 모비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구축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2021년 완공 예정인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대전 중이온 가속기에 정밀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모비스가 선점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로 제어시스템과 가속기 제어시스템 등 양대 분야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계획 및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후속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장 이후 모비스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제어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빅사이언스 구축물 정밀 제어시스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능형 제어솔루션 엔진(제품명 '모아이')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아이 개발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제어시스템, 스마트 데이터 네트워크 솔루션, 스마트 교통망 제어시스템 산업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모비스는 향후 대전중이온가속기와 기장 중입자가속기, ITER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통해 2020년에는 4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 결정되면 3월 중에는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통한 코스닥 상장이 완료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차이나하오란 주가 추이
(단위: 원)



차이나하오란 장하오룡 대표
지분 19.75% 새 최대주주로

차이나하오란의 장하오룡 대표가 기존 최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새롭게 최대주주에 올랐다.

차이나하오란은 장 대표가 주식 총 58만8370주를 추가 취득, 전체 발행주식의 19.75%를 확보해 대표이사인 동시에 최대주주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장 대표는 기존 최대주주의 남은 지분도 전량 인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장 대표는 최대주주인 루리(LULI)의 지분 전량인 약 1080만 주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0.12%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3억1770만 원(10일 종가 기준)이다. 장 대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 경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에 앞서 장 대표가 회사의 안정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글로벌 고객사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의 증가에 따라 향후 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계약과 별개로 양수도 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기관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CB)의 물량을 인수했다. CB발행 조건 중 최대주주 변경 시 CB 보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 CB 보유자의 물량 일부를 직접 인수했다.

한편, 차이나하오란은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으로 매출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 고부가가치 고급 용지 생산 비중을 늘려 약 60%까지 올렸던 신공장 가동률이 최근 약 73%까지 상승하면서 고정비 감소와 이에 따른 이익률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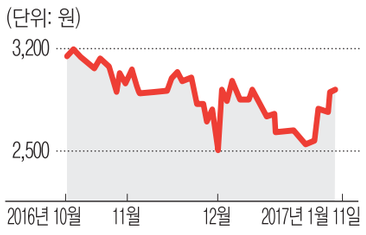
네오피델리티, 실적호조 '관리종목 이슈' 탈출 기대

피부치료·제모용 IPL제품
작년 3분기 영업익 2억 이상
4분기도 성장세 이어갈 전망

코스닥 상장기업 네오피델리티가 4분기 실적 증대로 관리종목 편입 이슈에서 탈피할 전망이다.

12일 네오피델리티 관계자는 "2016년 4분기 IPL(Intense Pulsed Light·복합광파장)기기 판매가 호조를 보여 올해 관리종목 편입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체 개발한 IPL제품 '로완(Rowan)'이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네오피델리티 주가 추이
(단위: 원)



회사 관계자는 "작년 3분기에 이어 로완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약 30%의 고마진을 남기며 회사 수익성에 높은 기여를 했다"며 "작년 3분기 개별 영업이익이 누적 2억 원을 웃돌았으며 4분기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헬스케어 사업에서 다양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매출 확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IPL은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이용해 피부치료, 제모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의료기기다. 네오피델리티의 로완은 IPL기기 최초로 4개국 음성 안내, 내장 블루투스 스피커, 터치패드 등의 부가기능을 탑재다. 최두선 기자 sun@

3월 상장 에스디생명, 900억 조달 전망

'바다제비집 마스크팩' 유명
공모가는 최대 1만8000원

기능성 화장품 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은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이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600만 주(신주모집 400만 주, 구주매출 200만 주)다.

공모 예정가는 1만5000원~1만8000원으로 총공모 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900억 원이다.

2월 14~15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상장 및 매매 개시 예정은 3월이다.

'바다제비집 마스크팩' 등 기능성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SNP' 브랜드를 보유한 에스디생명공학은 피부과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던 트러블 케어 제품을 기반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대표제품인 바다제비집 마스크팩은 로열젤리보다 세포보호 효과가 높은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 2014년 7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억 개가 넘게 팔렸다.

에스디생명공학은 기능성 마스크팩에서 입증된 신소재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제품군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아크시스), 기초(LAB+), 한방(자아련), 남성용(타임리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색조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주요 제품은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터키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게임빌 형제, 누적 다운로드 13억건 돌파

컴투스 '서머너즈워'만 7000만건…국외시장 비중 80%

국내 유명 모바일 게임사인 게임빌은 자회사인 컴투스와 양사 게임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총합 13억 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히트작 하나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통상 수천만 건 수준인 만큼 10억 건을 훌쩍 넘는 숫자는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게임빌 측은 설명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게임 업계의 대표 '형제 회사'로 꼽힌다. 게임빌이 2013년 컴투스를 인수했고, 현재 양사 대표는 송병준 게임빌 대표가 겸직하고 있다.

게임빌 관계자는 "컴투스의 RPG(롤플레잉게임)인 '서머너즈워'만 누적 다운로드가 7000만 건에 달한다"며 "'제노니아 시리즈', '피싱마스터', '드래곤 블레이즈', '컴투스프로야구 2016', '원더택틱스' 등 게임이 고루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국외 시장 비중이 80%에 육박해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SAMSUNG

세상 어디로든
갈 수 있어야
진짜 노트북

799g 초경량
뉴트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인텔 인사이드®. 더 뛰어난 성능 아웃사이드

900X3NI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

All day, All night, Always

삼성 노트북 9 Always

intel CORE i3 7th Gen
intel CORE i5 7th Gen
intel CORE i7 7th Gen

*제품의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배터리팩은 별매입니다.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코어 및 코어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해당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 및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com/sec)